

2권

선생님  
아이  
엄마  
아빠

# 함께 배워요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실천하기



# 발간사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동시에 일선 보육현장에서 아동들을 위하여 애쓰는 보육교직원들에게도 자괴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아동학대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보육교사들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아동들을 돌보아야 할 선생님들의 자세가 움츠러듦에 따라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보육을 복돋아줄 수 있는 길라잡이가 절실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을 올바르게 돌보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최초로 발간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소명의식을, 또 다른 한편에는 사랑을 품고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올바르게 돌보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아 매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많은 보육교직원 여러분들께 이 안내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에 일선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재를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책자 곳곳에 만화를 삽입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교수, 현장전문가 등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는 작업도 거쳤습니다.

보육현장의 상황은 촌각을 다투며 급변합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품성과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생각도 다양각색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상황과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담은 안내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크나큰 모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첫걸음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께서 앞으로 주실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치를 발할 자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촉박한 일정과 최초의 돌봄 안내서 발간이라는 정신적인 부담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을 다하여 애써 주신 집필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보육현장에서 아동들의 올바른 돌봄을 위해 의미 있게 활용되고, 어린이집과 부모님들 간에 공감대를 키워 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6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 현 옥



[2권] 선생님-아이-엄마아빠 함께 배워요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실천하기



■ 들어가며

I.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이란? • 1

- 1.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원리 ..... 3
- 2. 상황에 따른 훈육적 접근의 상호작용 ..... 7

II. 일과의 흐름에 따른 배려적 훈육 • 9

- 1. 등·하원시간 ..... 11
- 2. 배변과 손 씻기 시간 ..... 15
- 3. 급·간식시간 ..... 19
- 4. 전이시간 ..... 23
- 5. 정리정돈시간 ..... 27
- 6. 낮잠시간 ..... 31

III. 또래 갈등을 위한 중재적 훈육 • 35

- 1. 친구를 재미로 건드리기 ..... 37
- 2. 친구 물건 빼앗기 ..... 41
- 3. 친구를 따돌리기 ..... 45
- 4. 친구를 때리기 ..... 49
- 5. 친구에게 욕하기 .....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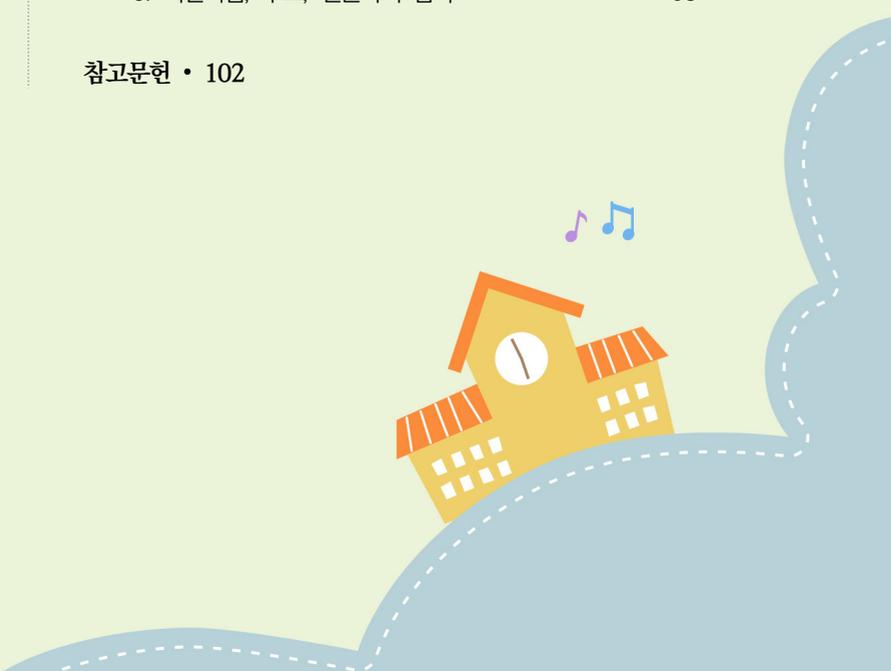
**IV. 방해·비참여 영유아를 위한 대안적 훈육 · 57**

- 1. 흥분하여 과잉행동하기 ..... 59
- 2. 금방 싫증내며 산만해지기 ..... 63
- 3. 반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기 ..... 67
- 4. 관심 끌기 행동으로 활동 방해하기 ..... 71
- 5. 선생님하고만 있으려 하고 또래와 어울리지 않기 ..... 75

**V.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한 영유아 · 79**

- 1. 발달이 늦는 영유아 ..... 81
- 2. 주의가 지나치게 산만한 영유아 ..... 85
- 3. 공격행동이 두드러지는 영유아 ..... 88
- 4. 강박 성향을 보이는 영유아 ..... 90
- 5. 어린이집, 부모, 전문가의 협력 ..... 93

**참고문헌 · 102**







# 들어가며



이 책은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행동을 지도하는지에 대해 안내하는 자료이다.

오래 전부터 보육현장에서는 '훈육'이라는 개념을 들어 영유아를 지도해왔다. 과거의 훈육은 교사가 원하는 대로 영유아가 행동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제시하는 훈육의 개념은 교사가 영유아의 권리를 인정하여 존중하는 가운데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을 기르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많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저마다 영유아를 사랑으로 보육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훈육한다. 그러나 사랑으로 대하는 훈육방식들이 때로는 영유아를 존중하지 않거나 영유아권리를 침해하며, 심한 경우 학대로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보육의 기본 요소인 영유아의 존중을 위해 교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교사들이 가진 영유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하여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잘 이해하게 되고 공감적인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보육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아이들과 함께 하는 현장이 교사에게도 영유아에게도 행복한 보육이 되기를 기대한다.





[2권] 선생님-아이-엄마아빠 함께 배워요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실천하기

# I.

##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이란?

1.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원리
2. 상황에 따른 훈육적 접근의 상호작용





# I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이란?

## 1.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원리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이란 영유아가 상황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여 실천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능력 있는 영유아로 키워내고, 영유아의 삶에서 자기 발전과 성장을 가져오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곧, 영유아의 자기통제를 통한 자기훈육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동안 훈육을 영유아의 문제행동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 즉 관계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 1) 장기적 목표 설정하기

영유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영유아가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여 실천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능력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자기통제를 통한 자기 훈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유아가 A 행동을 하는 것보다 B 행동을 하는 것이 왜 나은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성인이 있든 없든 바람직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유아는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고,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영유아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며 영유아의 자아 존중감 등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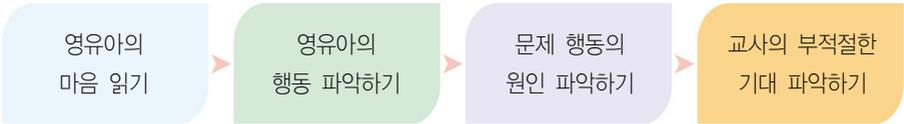
요즘 철이가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앉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의 머리를 만지거나 발로 건드려 친구들이 싫어하는데 나와 이야기 할 때만 잠시 그 행동을 멈추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걱정이네...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그러한 행동은 친구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시간을 집중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거 같아. 그렇게 해서 철이가 스스로 자기 행동을 조절하고 주변상황에 맞게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



## 2) 상황분석하기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단순히 행동 수정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 행동의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영유아의 관점에서 우선 생각해보고 교사 스스로도 부적절한 기대치가 있었다면 인정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철이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왜 친구들에게 계속 장난을 거는 것일까? 장난치는 게 무엇보다도 재미있었던 것일까? 그 시간이 따분한 걸까? 자리가 좁았던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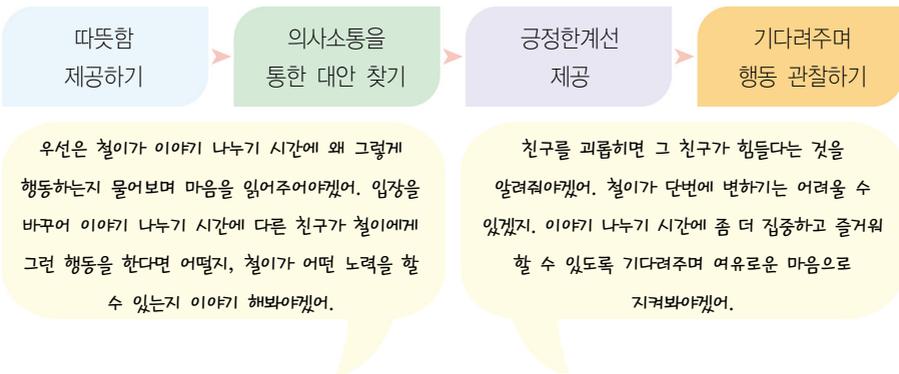
철이를 관찰해보니, 앉자리의 영이와 솔이를 재미로 건드리는 빈도수가 더 많네? 영이와 솔이는 철이가 건드릴 때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 같아. 그렇다면 반응을 안 하는 친구들을 재미로 더 건드리는 것일까?





### 3) 영유아와 함께 해결 방안 찾기

훈육은 교사와 영유아가 상호 존중하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유아에게는 의견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때 유아와는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만 영아는 대안 찾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영아에게는 교사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의 결과는 어떠한지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대안을 찾고 어떻게 행동할지 영유아와 약속했다 하더라도 단번에 행동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4) 협력하기

긍정적 훈육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가정의 연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영유아에 대해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외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께도 철이의 장점이 많지만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힘들어하고, 그 시간에 앉자리 친구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친구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과 철이와 오늘 이야기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어머님께도 이야기해야지. 가정에서도 철이가 재미로 하는 행동이 어머님을 불편하게 한다면 “엄마는 철이가 00행동을 하면 불편해, ~게 행동해 보자” 와 같은 나 전달법(1-message)을 사용해서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드려야겠어.





## 2. 상황에 따른 훈육적 접근의 상호작용

어린이집에서 교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는 개별 영유아의 욕구 충족이고, 다른 하나는 반 전체 영유아를 이끌고 일과를 운영해야 하는 학급 관리에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딜레마를 들여다보면, 욕구와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한 명의 영유아가 반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의 내막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 분위기가 억압적이고 통제적이거나, 지나치게 허용적이고 방임적이라면, 갈등과 혼란으로 부정적 정서가 가득한 상황이 될 것은 틀림없으며, 이런 학급에서의 영유아들의 개별적 욕구 충족은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어린이집의 등원부터 하원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욕구 충족과 학급의 안정적인 일과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신념과 가치판단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영유아의 실수 행동의 원인과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며 영유아가 습득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를 결정하여 상호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 어떠한 훈육적 상호작용이 필요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훈육적인 상황을 갈등의 주체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즉, 첫째, 한 명의 부적응 양상을 보이는 영유아와 교사의 갈등, 둘째는 또래 간의 갈등, 셋째는 개별 영유아와 학급 전체 영유아들 간의 갈등 상황입니다.

본서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여 배려적, 중재적, 대안적 상호작용의 실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훈육적 상호작용의 기본 전제 중의 하나는 영유아들의 물리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 1) 배려적 훈육

배려적 훈육이란 어린이집의 일과를 운영함에 있어 영유아의 개인적인 요구와 충돌이 있을 때 영유아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맞추어 훈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일과에 영유아의 생리적, 정서적, 인지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교사의 입





장에서 영유아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영유아의 마음을 충분히 읽으면서 영유아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호작용이 요구됩니다.

### 2) 중재적 훈육

중재적 훈육이란 영유아들의 사회적 기술 부족과 사회 인지 발달의 미숙으로 또래 간 갈등이 있을 때 교사가 중재적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들의 친 사회적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 습득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사는 중재자로서 영유아들이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을 인식하고, 배려적 사고와 행동을 실천하여 대인관계적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3) 대안적 훈육

대안적 훈육이란 영유아가 학급 전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개인의 입장과 공동체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영유아가 최선의 참여를 하도록 선택적 대안을 협의하는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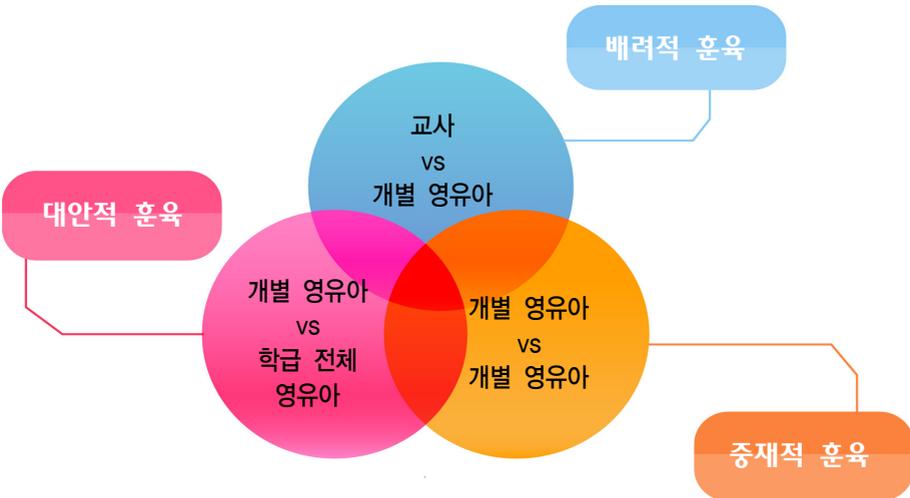


그림 1 | 갈등의 주체에 따른 교사의 훈육 상호작용



## II.

### 일과의 흐름에 따른 배려적 훈육

1. 등·하원시간
2. 배변과 손 씻기 시간
3. 급·간식 시간
4. 전이시간
5. 정리정돈 시간
6. 낮잠시간





# II 일과의 흐름에 따른 배려적 훈육

## 1. 등·하원시간





### 영아 이해하기

- **엄마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 엄마가 가 버리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 영아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껴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데 이것을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 **아직 어린이집이 낯설어.** 엄마랑 헤어질 준비도 안 됐는데... 친숙한 부모와 떨어져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 **나는 오늘 어린이집에 갈 기분이 아니야, 그냥 기분이 안 좋아.** 등원할 때 기분이 안 좋거나 몸이 아픈 경우 등원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 유아 이해하기

- **선생님도 낯설고 어린이집도 금방 적응하기 어려워!**  
친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 모든 것이 낯설고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처음부터 어린이집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죠. 어린이집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동생이랑 엄마는 집에 있는데 나도 엄마랑 집에 있고 싶어요.**  
동생이 생긴 이후 퇴행 행동과 엄마를 동생에게 뺏길 것 같은 생각으로 인해서 엄마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너무 힘들어요. 다른 애들이랑 나는 달라요.**  
기질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아이는 적응 과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 교사 이해하기

- **엄마랑 떨어질 충분한 준비가 될 때까지 엄마한테 기다려 달라고 해야지...**
-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 **어차피 처음엔 다 우는 거야. 울어도 금방 그칠 거니까 빨리 안고 들어가야지**
- **오늘 특별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지.**





## 전문가의 조언

### 점검해보세요

#### ■ 부모와의 애착은 잘 형성되었나요?

한 달이 넘도록 적응 못하는 아이는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대상은 아이 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 면담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 ■ 아이의 건강상태와 기분을 확인합니다.

평소에 잘 떨어지던 아이도 몸이 아프면 엄마에게서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합니다. 등원 시 아이의 건강상태, 기분 등을 확인합니다.

#### ■ 어린이집의 생활을 아이가 힘들어 하지는 않나요?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규칙이나 또래 갈등을 버거워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하루일과를 잘 관찰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도와주세요

#### ■ “영이야, 어린이집이 많이 낯설지?”

새롭고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절차를 만드세요. 아이는 새로운 환경을 낯설어하고 친숙한 부모와 분리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도와주어야 합니다. 신입 원아 적응기간을 두고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어린이집 환경과 하루 일과에 적응해나가도록 합니다. 이때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영유아의 성격, 습관, 좋아하는 것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천천히 적응하도록 배려합니다.

#### ■ “영이야, 엄마랑 헤어지는 것이 슬프지?”

강제로 떼어놓지 마세요. 교사 입장에서는 바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아이를 강제로 떼어놓으려 아이를 안고 교실로 빨리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는 마음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교실에 들어가서 놀이를 시작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아이의 불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부모의 협조를 구합니다.





■ “영이야, 선생님이 안아줄까? 선생님이랑 같이 엄마사진 같이 보러갈까?”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보육교사는 교사이면서도 양육자의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모성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슬퍼하는 아이에 대해 따뜻하게 안아주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과 함께해요**

- 신입 원아 적응기간 동안에는 영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낮선 공간인 어린이집에서 적응하도록 합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단계별로 늘려나가면서 교사와 애착이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 생후 6, 7개월이 지나면서 낮가리기를 시작해서, 12개월~15개월쯤에는 분리불안이 아주 심해집니다. 영아가 양육자 이외의 사람들과 지낸 경험이 적을수록 분리불안도 큼니다. 영아의 기질과 양육자와의 애착 양상에 따라 적응에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납니다.
- 조급한 마음에 강제로 떼어놓고 설명도 없이 가버리면 영유아는 더욱 불신감을 갖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야 합니다.
- 낮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의 불안감이 여과 없이 자녀에게 전달되므로, 가정에서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가져야 어린이집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등·하원 시간에 교사와 부모의 충분하고 신뢰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2. 배변과 손 씻기 시간





### 영아 이해하기

- 아까는 쉬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려워.  
화장실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생리적인 현상이라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며, 교사가 화장실을 다녀오라고 하면 긴장해서 더 안 나오기도 합니다.
- 아까 화장실에 갔다 오긴 했는데 또 마려워.  
영아기는 방광이 미성숙한 시기기 때문에 자주 화장실을 다니게 됩니다.
- 내가 쉬 마렵다고 하면 선생님이 나만 화장실을 데리고 가줘서 선생님이 내 차지가 돼.  
영아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애착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과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으로 혼자서 차지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 유아 이해하기

- 아까는 쉬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려워.  
방광이 미성숙한 시기에는 배변 훈련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화장실을 다니면서 조절 능력을 키워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자주 다니기도 합니다.
- 노는 시간에는 놀고만 싶어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  
놀이에 집중하면 화장실 가는 시간을 놓치게 되거나 일부러 놀기 위해 화장실 가기를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마음이 불안해서 쉬를 해도 다한 것 같지 않아. 자꾸 가게 돼  
화장실 자주가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안 행동입니다. 특히 감각이 예민한 아이의 경우 집에 있는 변기랑 달라 화장실에 가서도 편하게 소변을 보지 못하고 자주 다니게 됩니다.



### 교사 이해하기

- 정말 급할 수 있으니까 가고 싶다고 할 때는 보내줘야지.
- 하나가 화장실 가면 다들 따라서 간다고 할 텐데.. 다른 아이들 때문이라도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 노는 시간에는 잘 참고 놀더니 대집단 활동 시간만 되면 화장실을 간다고 하네.
- 자꾸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니까 어디가 불편한 것은 아닐까?





## 전문가의 조언

### 점검해보세요

- 화장실을 자주 가는 원인을 잘 찾아봅니다.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불편하거나 불안한 경우 또는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도 “배가 아파요.”라고 하면서 화장실을 간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너무 자주 가는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가지 않는 경우도 문제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변비가 있으면 변을 볼 때 느껴지는 통증을 무서워해서 안 가고 억지로 참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배변 기능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변을 잘 볼 수 있도록 가정과 어린이집의 연계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렇게 도와주세요

-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다녀오도록 하자!”  
하루 일과 중 전이시간을 이용해서 규칙적으로 충분히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표현할 때에는 화장실 이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혹시 놀이에 집중하느라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라면 소변 마려울 때 보이는 특징적인 행동이 있는지 잘 관찰하여 지도합니다.
- “영이야 화장실 가고 싶다는 손가락 표시를 정하자!”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세요. 배뇨, 배변의 문제는 자칫하면 이후 성장기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며, 배변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 “영이야, 어린이집 화장실이 집이랑 달라 불편하니?”  
가정과 다른 환경인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은 아이에게 불안감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내면적 불안감은 외향적 신체 행동으로 나타기도 합니다. 배뇨와 배변활동의 어려움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 오는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읽어주세요.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한 점들은 없는지 이야기 나누어보고, 어린이집 생활 내에서 아이가 불안해하는 요





소들을 점검하며, 충분한 공감을 통해 보다 편안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옷이 젖었니? 옷을 갈아입자!”

소변 실수를 했을 때에는 화장실 번기에 앉도록 해서 방광에 남아있는 잔뇨를 모두 배출하도록 합니다. 엉덩이와 다리를 깨끗이 씻기고 젖은 옷은 두어 번 행귀서 비닐 팩에 담아 귀가 시 가정에 보냅니다.

■ “소변을 볼 때 아픈 곳이 있니?”

방광이나 항문 등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장실을 스스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구조나 설비 등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가정과 함께해요**

- 배뇨, 배변은 가족력, 신체적 요인, 환경, 강압적인 대소변 훈련 등 여러 영역에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원인을 찾고 원인에 맞는 도움도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서의 배뇨, 배변의 문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가정과 함께 다각적인 요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가정 내에서의 대소변 훈련은 어린이집 생활의 적응과 안정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대소변 실수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꾸중을 하게 되면 아이는 위축되고 초조해서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 동생 출생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은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바라는 퇴행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받으면 빠르고 원활하게 호전될 것입니다.





### 3. 급·간식시간





### 영아 이해하기

- 처음 본 반찬이 물컹거리고, 색깔도 이상해.  
영아들은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기 쉽고, 음식에 대해 감각적으로도 예민해서 익숙하지 않은 음식은 입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좀 전에 간식 먹었더니 배가 고프지 않아.  
식사시간 전에 바로 간식을 먹었거나 간식의 양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 손가락으로 밥을 먹는 건 너무 힘들어.  
아직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아 손가락 사용이 힘들면 밥 먹는 것까지도 힘들어합니다.



### 유아 이해하기

- 내가 집에서 먹던 음식이랑 달라.  
평소에 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음식에 익숙해있으면 어린이집의 새로운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입이 짧은 아이일 경우 반찬에 따라 밥 먹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 간식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고프지 않아.  
간식시간과 점심시간의 간격이 짧을 경우 또는 간식을 너무 많이 먹은 경우 섭취한 음식이 다 소화되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아서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 난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밥 먹기 싫어.  
평소에 잘 먹던 유아들도 몸이 아프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을 경우 식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 교사 이해하기

- 건강을 생각하면 골고루 다 잘 먹어야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먹여 봐야겠어.
- 그만 먹으라고 하고 싶지만 다른 애들도 따라서 안 먹겠다고 할까봐 어쩔 수 없어.
- 먹는 게 정말 힘든가 보네. 조금만 먹으라고 해 보고, 안 먹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 전문가의 조언

### 점검해보세요

- **간식시간과 점심시간의 시간 간격을 점검해 보세요.**  
간식과 식사시간의 간격이 연달아 있으면 음식으로 흡수한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지 않아 배가 고프지 않게 되고 식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확인하세요.**  
영아의 경우 씹는 근육과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아 손가락질이 어려워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별적으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도와주세요

- **“영이가 밥 먹을 때 바르게 앉아 있네!”**  
기분과 식욕은 정 비례합니다. 억지로 먹이지 말고 기분 좋게 식사를 하도록 분위기를 전환하세요.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게 되면 음식이나 식사시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더 커지게 되므로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영유아의 개인차를 존중하며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얼마큼 먹어볼까? 두 조각 먹을까? 세 조각 먹어볼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먹게 하기보다는 음식을 먹기 힘든 이유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워 조금씩 시도해보도록 합니다. 이때 교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유아가 스스로 먹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격려해줍니다.
- **“처음 보는 음식이구나. 오늘은 맛만 보자~ 어떤 맛일까?”**  
새로운 음식에 잘 적응하도록 천천히 지도해주세요. 보통 음식에 대한 거부는 익숙하지 않은 음식 재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양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아이에게는 새로운 음식의 재료와 감각적으로 친숙해질 수 있도록 눈으로 관찰하고 냄새 맡고 만져보게 하는 활동을 통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영이 동굴 속으로 손가락 기차가 칙칙푹푹!”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음식의 크기나 씹는 질감 등이 불편할 경우에는 그것을 씹고 삼켜야 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작은 크기로 곱게 다져서 다른 좋아하는 재료와 섞어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법입니다. 또한 어린이용 식사지도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차놀이, 비행기 놀이 등 밥 먹는 행위 자체의 즐거움을 키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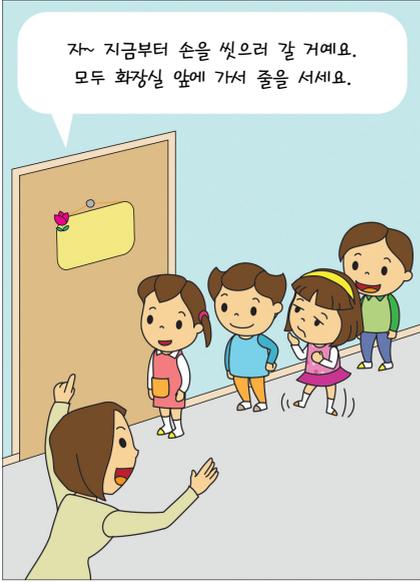
**가정과 함께해요**

- 음식을 먹기 힘들어하는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과 가정이 동일한 목표를 세우고 서로 협력적으로 영유아의 식습관 지도를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가 음식에 친숙함을 느끼고 즐거운 식사시간이 되도록 영유아에게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 억지로 먹이거나 먹지 않는다고 해서 야단치는 방법을 쓰는 것은 오히려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더 크게 합니다. 또한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주게 되면 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싫어하는 음식재료는 곱게 다져서 크기를 작게 하고 좋아하는 고기나 다른 재료와 섞어서 조리해 주면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 엄마와 유아가 함께 하도록 해서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모든 과정은 한두 번 만에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도록 합니다. 아이가 안쓰럽게 느껴지거나 한두 번 시도해서도 어렵다고 포기하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어려우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합니다.





### 4. 전이시간





### 영아 이해하기

- 기다리는 건 너무 어려워.  
영아들은 욕구를 지연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야 합니다.
- 차례가 뭐예요? 우리 줄 서기가 어려워요.  
영아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시기로 교사의 지시보다는 자신이 놓고 싶은 것에 더 중심을 두고 행동하기 때문에 줄 서기 등을 일방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유아 이해하기

- 기다리는 건 재미없어요.  
유아들은 놀이를 좀 더 하고 싶을 때 차례를 지키지 않거나 빨리 다른 활동을 하고 싶을 때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 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  
유아의 경우 대부분 가만히 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특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차례를 지키며 기다리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 우리 집에서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서 혼자 놀이한 경험이 많거나 부모가 아이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했던 경우에는 기다리는 경험이 부족하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교사 이해하기

- 한 명씩! 한꺼번에 모여들면 다 도와줄 수 없어.
- 한 줄로 서 있으면 내 시야에 다 들어와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 아이들도 차례차례 줄 서는 것이 필요해.





## 전문가의 조언

### 점검해보세요

- **아이들이 한눈에 안 보이는 물리적 공간 해결하기**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을 확인하여 되도록이면 영유아들이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기다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거나 세면대 또는 화장실 번기의 수를 좀 더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 **지나치게 움직이고 산만한 아이 확인하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잠시도 가만히 서있지 못하고, 이것저것 막 만지는 행동을 하거나 자기 자리에서도 옆 친구를 건드리며 산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꼭 줄을 서야하는 상황인지 확인하기**  
 반의 모든 영유아들이 꼭 줄을 서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에서 화장실 가기, 양치질하기, 식사 배식하기 등의 활동을 일제히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진행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발달이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 봅니다.

### 이렇게 도와주세요

- “영이야, 철이가 씻는 동안 어떻게 기다리면 지겹지 않을까?”  
 “노래를 부를까? 끝 말 잇기를 할까? 거꾸로 수세기를 해볼까?”  
 차례를 지켜서 기다려야 하는 활동은 꼭 줄을 세우려 하지 말고 다른 가벼운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순서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하세요.
- “영이야 오래 기다려야 하니 오늘은 물티슈로 손을 닦자.”  
 어린 영아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붐벼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다른 제안을 제시합니다. 되도록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주세요.
- “우리 몇 명씩 줄 설까? 두 명씩 친구 손잡고 갈까?”  
 기다리는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합니다. 오래 기다리게 되면 아이들도 힘들어할 수 있





오니 기다리는 시간을 되도록 짧게 합니다. 또는 여러 명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다 함께 손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식사 당번을 정해서 식사 배식을 함께 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정과 함께해요

- 영아에게 기다리는 상황이나 규칙에 대한 순응은 발달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영아에게는 환경을 조정하거나 여러 상황에 변화를 주어 되도록 아이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영아욕구를 조정하지 말고 반응해주며 수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는 자녀 중심으로 생활하며 자녀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다 보면 순서에 따라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어린이집처럼 대집단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차례를 지키며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정에서도 여러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 차례와 순서를 정하여 지내는 경험을 해봅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놀이에서의 순서, 신발을 신는 순서, 식사의 순서 등을 말합니다. 자신의 차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영유아의 개별적인 욕구도 고려해야 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약속을 함께 만들며, 정해진 규칙은 지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모든 일에는 순서와 차례가 있습니다. 옷 입기, 신발 신기도 그렇고, 양치를 할 때도, 놀이감을 사용할 때도 그렇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영유아가 순서를 잘 지켜서 일의 바람직한 결과가 이뤄졌다면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보다 가정에서 일상생활 중에 민주시민으로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기 행동 통제를 스스로 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 줄을 함께 서고, 차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경험은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5. 정리정돈시간





### 영아 이해하기

- 아직은 더 놀고 싶어.  
영아들의 놀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아이들은 놀이를 계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 장난감을 어떻게 정리하는 건지 모르겠어.  
영아는 정리정돈의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교사의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창 재미있었는데 갑자기 정리하라고 하시네.  
놀이라는 상상의 세계에서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라는 얘기로, 영아들에게 이러한 전환은 놀이를 잘 마무리하지 못해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유아 이해하기

- 난 정리하기 싫어.  
유아는 장난감 정리하기와 같이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행동에 대해 회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 내가 안 해도 다른 애들이 정리하겠지. 선생님은 모르실거야.  
유아에게 놀잇감 정리를 지도할 때 '놀잇감을 정리하세요!'라고 지시하고 유아들을 관찰하지 않으면 교사를 피해 다니며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난 방금 놀기 시작했는데 벌써 정리하라고 하셔.  
놀이가 끝나는 시간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경우 놀이를 충분히 즐기지 못한 유아들은 정리 시간으로 쉽게 전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교사 이해하기

- 하기 싫어 꾀를 부리고 있구나!
- 어렸을 때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 다른 아이들까지 따라서 정리 안 하게 되면 어찌지.
-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데.....





## 전문가의 조언

### 점검해보세요

- 놀이의 시간이 충분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놀이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놀이에서 다른 활동으로의 전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놀이 후에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 환경은 잘 준비되어 있나요?

연령에 적합한 정리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린 연령의 영아에게 스스로 정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는지, 교사가 다 정리하고 평소에 너무 허용적이었는지, 정리 공간이 연령에 적합한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놀잇감 정리하기에 대한 환경이 다를 경우 아이는 습관을 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정리를 다 해주고 아이가 정리를 해 본 경험이 없거나, 가정 내 환경이 정리 정돈이 안 되는 환경일 경우 아이가 경험이 부족하여 정리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도와주세요

- “철아, 선생님이랑 함께 놀잇감 정리해보자.”

“놀잇감을 정리하세요!”와 같은 다수를 향한 지시어보다는 “철아, 이 장난감을 장난감 바구니에 갖다가 정리해 볼까?”처럼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 “철이는 퍼즐 치우는구나? 영이는 어떤 놀잇감 정리할까?”

연령에 적합한 개별적인 정리 목표를 세워봅니다. 영아에게는 교사가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나머지 하나의 영역만 정리하도록 하여 정리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 필요하고, 유아의 경우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정리함이나 정리 영역을 수준에 맞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 “이제 조금 있으면 놀이를 마치고 정리할 거예요.”

교사가 마음대로 놀이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활동을 위해서 정리가 필요하





다는 것을 알려주고, 아이들 스스로 놀이를 끝낼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면 놀이가 끝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덜 할 수 있습니다. 놀이가 끝나기 5분 전에 “자, 시계 긴 바늘이 5자에 있어요. 이 긴 바늘이 6자로 가면 우리는 놀잇감을 정리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 “여러분 재미있는 정리 시간이예요.”

정리 시간이 재미있는 놀이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참새가 되어 날아다니며 정리해볼까? 짹짹. 참새가 블록을 물고 날개짓하는 게 힘든가 봐요. 이제부터 우리가 힘이 센 독수리가 되어 도와줄까? 힘찬 날갯짓을 하면서 블록 정도는 쉽게 옮길 수 있지.’



**가정과 함께해요**

- 가정에서도 정리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어린이집에서 정리를 잘하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정리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 수준이 미흡하더라도 칭찬을 해주시면서, 함께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강화가 되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물건을 정리하기에 적합한 수납장을 준비하고, 많은 놀잇감으로 뒤죽박죽되지 않도록 적당한 양의 놀잇감을 제공하며 아이가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정리하기에 좋은 환경은 정리정돈을 습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정리 전후의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보는 칭찬 자료를 만들어 함께 달력에 붙여봅니다. 자신이 했던 일의 긍정적인 보상은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6. 낮잠시간





### 영아 이해하기

- **엄마가 옆에 있어야 자는데 엄마가 없어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아이는 집에서도 엄마가 옆에 붙어 있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 **엄마처럼 토닥토닥해줘야 잠이 잘 와요.**  
영아는 잠자는 시간에 대한 신호로 가정에서 등을 토닥여주는 것이 습관이 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 쉽게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 **좀 더 놀고 싶어요.**  
영아마다 수면 패턴이 다르기도 하고 에너지의 발산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잠이 오지 않기도 합니다.



### 유아 이해하기

-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졸리지 않아요.**  
가정에서의 저녁 수면 패턴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우 유아는 어린이집에 와서 낮잠을 자기 힘들어합니다.
- **조금 전에 했던 재미있는 놀이를 계속하고 싶어요.**  
신나게 놀이하고 난 후이거나 활동형 유아는 놀이가 즐겁기 때문에 낮잠을 자지 않고 계속 놀고 싶어 합니다.
- **억지로 누워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잠이 오지 않는 유아는 누워 있으라는 교사의 지시에 힘이 들어 옆에 누워 있는 유아에게 장난을 걸고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합니다.



### 교사 이해하기

- 낮잠 시간에 잠이 오지 않아 안자면 오후에 놀다가 졸려서 놀이하는 동안 짜증을 내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 자기 싫다는 애를 일부러 재우고 싶지 않는데 다른 애들 깰까 봐 걱정이 돼요. 수면실도 따로 없는데 말이에요.
- 낮잠 시간에 알림장도 쓰고 보육 일지도 정리할 수 있죠. 낮잠을 자야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좀 볼 수 있을 있다고요.
- 억지로 재우는 것도 맘에 걸려요. 조용히 할 수 있는 놀이를 하도록 할까요?





## 전문가의 조언

### 점검해보세요

- 가정에서의 수면 패턴을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의 귀가 시간이 늦은 경우 늦은 시간에 만나게 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늦게까지 놀게 되는데, 이럴 경우 아침에 늦잠을 자는 패턴이 되고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기 힘들어집니다.
- 낮잠 자기 좋은 환경인가요?  
수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의 경우는 밝기, 소음, 이불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잠이 들기 어렵습니다. 영유아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 영유아의 개별 특징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질적으로 활동적이고 신체 에너지 수준이 높은 아이는 만 2세가 지나면 놀이를 통해 에너지 발산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잠을 자기 힘들어합니다.

### 이렇게 도와주세요

- “자, 여기 낮잠인형이 있어요. 함께 코 잘까요?”  
영아의 경우 아이마다 잠이 잘 드는 개별적인 버릇이 있습니다. 업혀서 자기, 공갈 젓꼭지 물기, 담요 끝 만지기, 같이 자야하는 인형이 있는 등 아이의 개별적인 잠버릇을 인정해주고 가정과 연계하여 집에서 쓰는 담요, 베개, 이불 등을 제공하여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철야 재미있었지? 낮잠 자고 또 재미있게 놀자!”  
신나게 놀면 잠도 솔솔 ~ 옵니다. 영유아의 수면패턴을 확인한 후 어린이집에서 낮잠 전 일과 중에 충분히 에너지 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낮잠 직전 시간에는 각성되는 일이 없도록 안정된 분위기를 마련해 줍니다. 영아의 경우 쾌적한 잠자리를 위해 낮잠 자기 전에 기저귀를 갈아 긴장감을 해소시켜 줍니다.
- “자장 자장~, 우리 철야 잘도 잔다.”  
잠들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영유아에게는 수면환경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창문을 커튼으로 가리고 조명을 되도록 어둡게 해 주시고 낮잠 시간이라는





신호가 될 수 있을만한 자장가를 매일 똑같은 곡으로 들려주거나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 “잠이 안 오면 매트에 누워서 쉬자”

영유아들을 개별적으로 배려를 해주세요. 쉽게 잠들지 못하는 아이나 조그만 소리에도 깨는 아이, 오래 자는 아이, 금방 깨는 아이 등 영유아의 연령과 개인차에 따라 다양한 낮잠 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낮잠을 못 이루는 아이나, 일찍 일어난 아이 들은 한쪽에서 조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줍니다.



**가정과 함께해요**

- 가정에서의 수면패턴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인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 개별적인 차이는 있으나 나이가 들수록 낮잠을 안 자려고 하는 것은 낮잠 없이도 저녁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에너지가 많아진 만큼 실외 놀이로 충분히 발산하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과 에너지 발산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면 낮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밤에 잘 자는 습관이 형성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면 성장호르몬을 촉진시켜서 뇌 건강과 발육에 긍정적입니다.
- 밤 9시~10시가 되면, 조용히 책을 읽거나 단순한 놀이를 해서 뇌가 각성되지 않도록 합니다. TV나 미디어 매체를 끄고 불을 어둡게 한 후, 온 가족이 같이 누워서 잠자는 시간임을 알립니다. 일주일 정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면 일찍 잠드는 습관이 들 수 있습니다.
-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 간식이 영유아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코코아가 들어간 초콜릿, 초코과자, 초코우유, 콜라와 사이다 같은 탄산수에도 카페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커피 맛 사탕, 커피 맛 우유, 모카빵 등 무지 불식 간에 여러 차례 이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카페인 섭취가 누적되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Ⅲ.

## 또래 갈등을 위한 중재적 훈육

1. 친구를 재미로 건드리기
2. 친구 물건 빼앗기
3. 친구를 따돌리기
4. 친구를 때리기
5. 친구에게 욕하기





# Ⅲ 또래 갈등을 위한 중재적 훈육

## 1. 친구를 재미로 건드리기

오누이는 호랑이를 피해 우물 위의 나무 위로 올라 갔어요.

오, 호랑이 쫓아오네! 무서워

A teacher is sitting on the floor, holding up a large picture of a tiger. Three children are gathered around her, looking at the picture with expressions of surprise and fear. One child is pointing at the tiger.

미안~, 하~ 내 손이...

야~ 하지마~

조용히 해, 동화 안 들려!

Three children are sitting on the floor. One child is speaking and another is responding. A third child is sitting quietly, looking towards the others.

선생님, 철이가 자꾸 머리 만져요.

Two children are sitting on the floor, talking. One child is touching the other's head. A third child is sitting nearby, looking on.

'지금 동화를 그만 들려주어야 하나?' '영이와 철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해야 하나?'

나를 밀었어요.

철이가 먼저 괴롭혔어요.

A teacher is sitting on the floor, holding a book. Three children are gathered around her, looking at the book. One child is pointing at the book.





### 영아 이해하기

- 친구 머리 만지기가 더 재미있어요.  
영아들은 친구의 긴 머리에 호기심을 가지고 만지는 걸 좋아할 수 있습니다.
- 친구 긴 머리를 끈처럼 잡아당기고 싶어요.  
영아들은 머리카락도 끈처럼 만져보고 싶어하고 손을 뺀어 잡아당기고도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체조절 능력이 부족해 힘을 조절하기 힘들어 세계 당기기도 합니다.
- 친구 싫다고 한 건 아닌데, 나한테 화를 냈어요. 친구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영아들이 공을 좋아하듯이 친구를 물리적으로 탐색하고 싶어 합니다. 원인(친구 머리 만지기)과 결과(친구가 화를 낸다)의 관계를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 유아 이해하기

- 선생님의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점점 재미가 없어졌어요.  
유아들은 긴 시간 주의집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게 들어도 불쑥 다른 생각이 들면 그 맥을 놓치고 금방 산만해집니다.
- 동화 자료가 안 보이는데 바로 앞에 있는 친구 머리카락에 나도 모르게 손으로 만져져요.  
무의식적으로 단순히 반복할 수 있는 만지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놀이가 됩니다.
- 나는 머리카락만 만졌는데 친구는 나를 밀치고 화를 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려면 시간과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주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 선생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친구가 미워요.  
자신의 행동이 원인이 된 것을 인지하지 못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지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귀결(원인에 따른 결과)을 유추할 수 있도록 비난 없이 이야기해주세요.



### 교사 이해하기

- 겨우 주의 집중 시켰는데 애들 때문에 분위기가 흐트러지네.
- 내가 동화 수업을 잘 못 해서 그런가 보다.





## 전문가의 조언

### 점검해보세요

■ **무료하고 심심했을까요?**

친구의 긴 머리를 재미 삼아 건드렸다가 싸움이 된 상황입니다. 영유아들은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서 불쑥 탄생각이 나거나 주의가 산만해지면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당장의 재미를 찾아 탐색 행동을 합니다. 어릴수록 눈으로 보는 동시에 손으로 만지려는 욕구가 많으니, 영아의 시선을 교사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선생님과 자료가 잘 보였을까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동화나 그림책을 들려주는 활동은 모든 영유아들의 다 함께 같이 듣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야와 개인적 공간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좁으면 불편감을 느끼고, 너무 넓으면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도와주세요

■ **“다치지 않았니?”**

안전을 확인합니다. 영이가 철이를 밀어서 넘어졌으니,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봅니다.

■ **“뒤로 넘어져서 아프고 속상했지?”, “친구가 머리카락을 만져서 귀찮았구나!”**

두 친구 모두 마음이 상했으니, 두 입장을 함께 공감해주어야 합니다.

■ **“철이가 잘 안보였구나. 자, 의자에 앉아서 들을까?”**

활동을 중간에 그만두고 갈등 증재의 대화를 하면, 다른 영유아들의 주의가 분산되고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철이의 시야를 확보해주는 배려로 편안한 자리를 안내해 줌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때 손가락 장난을 쳐서 따로 떨어져 앉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합니다.

■ **“철이는 머리카락을 자기도 모르게 만지게 되었다고 해”**

활동을 마치고, 두 아이와 함께 마주 앉아 두 입장을 공평하게 들어보고, 친구의 마





음을 알려줍니다. “영이는 머리가 망가질까 봐 걱정이 돼서 여러 번 싫다고 말했는데, 네가 그래도 계속하니깐 화가 났대. 멀리 앉으라고 한 건데, 네가 다칠 줄은 몰랐대.”, “친구 밀면 넘어져서 깜짝 놀라니까 조심하자!”

■ “여러 번 말해도 친구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

“친구가 여러 번 말해도 계속하면 네가 옆으로 멀리 가자”고 말해줍니다. 영유아들의 사회성 발달에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어서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친구들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익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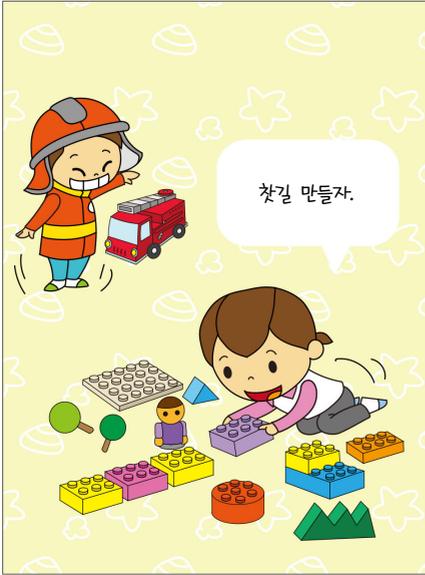
**가정과 함께해요**

- 자기중심성이 강한 영유아기에 매우 흔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읽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행동이 예의에 어긋나고, 친구에게 불편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 가정에서 허용되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이 어린이집에서 허용되지 않을 때 영유아가 난처한 상황을 많이 경험합니다. 가정에서도 일관성 있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 다른 사람의 기분과 입장 이해는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의 용어들을 듣고 사용해볼수록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미삼아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나 전달(- message)로 알 수 있습니다. “매달리지 말자!” 보다 “엄마는 네가 넘어져서 다칠까 봐 걱정이 돼, 손잡고 가자”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친구 물건 빼앗기





### 영아 이해하기

- **지금 당장 그거 하고 싶어요!**  
영아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자기 주변의 물건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탐색하고 싶어 합니다. 기다리며 참는 만족지연이 어렵습니다.
- **친구가 하는 놀이가 좋아 보여요!**  
주의 집중력이 짧고, 놀이 기술이 부족한 영아는 친구가 놀이하는 것을 보고 쉽게 자기 놀이를 그만하고 친구 놀이에 관심을 보입니다. 친구가 노는 것처럼 자기도 해 보고 싶습니다.
- **내가 갖고 있던 것도 내가 필요하니까 내거야.**  
영아는 소유 개념이 발달하지 않아서 필요한 만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소유로 인지적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필요를 느끼는 순간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울면서 떼를 쓰게 됩니다.



### 유아 이해하기

-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예요.” 놀이감만 생각해요**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소품이나 놀이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 **“친구가 나한테 안 줘요.” 차례를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차례를 지키며 기회를 또래들과 나누어 갖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마음이 클수록 만족지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나는 아까 양보했어요. 지금은 친구가 양보해야 해요**  
양보를 하는 것을 좋은 것임을 알지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냥 물건을 빼앗습니다. 둘 중 한 사람만이 기회를 갖게 된다는 논리를 갖게 되면 협상은 어렵습니다.



### 교사 이해하기

- **우선 우는 아이부터 달래야하나?**
- **이 장난감이 없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





## 전문가의 조언

### 점검해보세요

#### ■ 놀잇감이 충분한가요?

어릴수록 놀잇감이 여러 세트가 필요합니다. 갈등해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릴수록 또래의 놀이에 금방 동화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같은 속성의 놀잇감을 여유 있게 준비해둡니다.

#### ■ 놀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놀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영유아들이 놀잇감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누리기 어렵다고 여기고 초조해져서 약속을 지키거나 양보를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 ■ ‘나눠쓰기’를 위한 약속이 있었나요?

놀잇감을 함께 사용하기 위한 반 나름대로의 약속이 있고, 잘 지켜질 수 있었는지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놀잇감이 왜 필요한지 의논하기,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지 이야기해 주기,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기 등입니다.

### 이렇게 도와주세요

#### ■ “영이가 울고 있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비난 없이 말하기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비난 없이 인식시켜줍니다.

#### ■ “순이도 영이도 재밌게 놀다가 화가 났네” 두 입장을 함께 고려하는 공평함 확보하기

갈등 상황에서는 항상 두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교사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교사가 어느 한쪽 편에 기울었다면 다른 편 영유아는 분노를 느낄 수 있고,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 ■ “소방차가 필요한 사람은 둘인데 소방차는 하나밖에 없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의논합니다. 영아기에는 자기 인식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할 때에는 원하는 마음은 공감해주면서 줄 수 없는 이유(위험해서, 다른 사람 것이어서, 상황에 맞지 않아서)를 이야기해주면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아기에는 유아 편에서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공감해줍니다. “소방차가 있으면 더 재미있겠지? 맞아!” 그리고 나서 당장은 갖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 (위험해서, 다른 사람 것이어서, 상황에 맞지 않아서) 해줍니다. 유아와 함께 대안을 모색합니다. “소방차만큼 재미있는 것 찾아보자!”

■ “친구가 놀이할 때 그 놀잇감 필요하면 어떻게 말할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함께 의논합니다. “친구야 소방차 다 가지고 놀았니? 나도 필요해!”, “얼마큼 기다려?” 교사도 영유아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반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내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정해서 실행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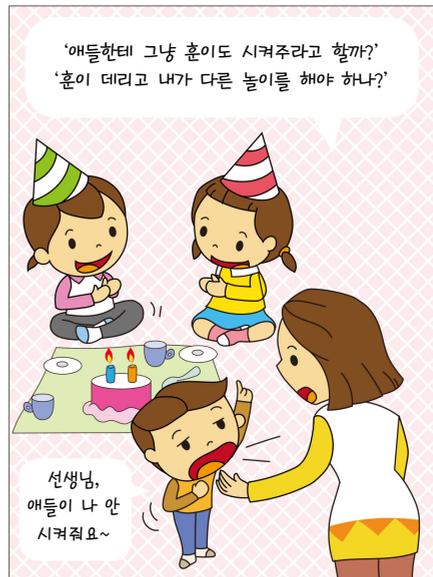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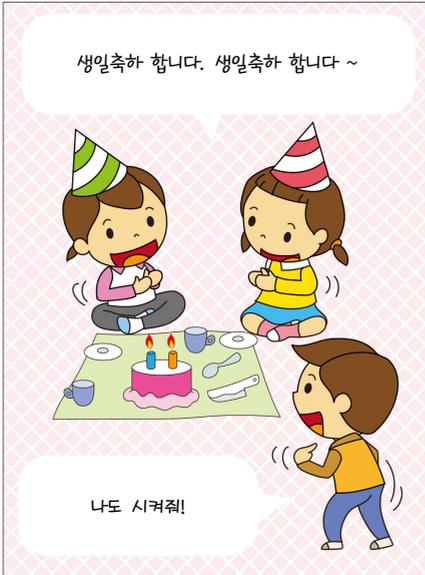
**가정과 함께해요**

- 자기중심적인 영유아들의 발달적 특성상 쉽게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다 즐겁게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가정에서 놀이 중에 이 같은 상황이 생기면, 나눠쓰자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나도 필요한데, 너 놀고 난 다음에 나 빌려줘”, “나는 좀 빨리 쓰고 싶은데, 몇 분 기다릴까?”, “나한테 빌려줄 동안, 이것 대신 쓰고 있을래?”, “옆에서 네가 사용하지 않을 때, 그때 잠깐만 쓰고 줄게~”형제와 놀이 중에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제3의 대안을 찾는 문제해결방법을 연습해봅니다. 소방차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소방차가 필요한 상황을 다른 상황(소화기로 칩~ 불이 다 꺼졌습니다!)으로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 부모님이 먼저 자녀의 소유를 인정하고, 소유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계속 보면,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 3. 친구를 따돌리기





### 영아 이해하기

■ **센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영아기는 자기가 주변을 통제하는 힘을 느끼며 자아감을 느낍니다. '싫어!', '아니!'라고 말할 때, 자기 맘대로 더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 **친구랑 역할놀이하기 어려워요!**

영아는 친구와 역할을 정해서 놀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아는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을 생각해서 친구에게 역할을 주는 것도 아직 어렵습니다.

■ **친구 마음은 몰라요.**

영아는 친구가 옆에 서있기만 해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속삭이고 섭섭한 마음을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감을 해도 적당한 문제해결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 유아 이해하기

■ **더 친한 사이가 되는 느낌이에요.**

유아기에는 우정을 발달시키려는 마음과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놀이를 잘 이끌어 가는 친구에게 더 매력이 느껴집니다. 더 가까이에서 놀이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친구들을 배제합니다.

■ **좋아하는 친구하고만 놀고 싶어요!**

유아기 또래들 사이에도 권력이 생깁니다. 유난히 많은 아이들이 따르는 인기가 있습니다. 유독 그 친구하고만 놀이하고 싶은 욕구가 큰 유아는 다른 친구와 놀이하는 기회를 나눠가지기 싫어서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 **친구를 따돌리면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유능감과 성취감 못지않게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또래들과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놀이에 친구를 끼워줄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 교사 이해하기

■ **모두들 사이좋게 놀면 얼마나 좋을까?**

■ **친구랑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는 내가 같이 놀아주면 되지.**





## 전문가의 조언

### 점검해보세요

- 자기 방식으로만 놀이에 들어가려고 하나요?  
자기주장을 세게 하고 고집을 부리는 영유아기에는 의견 충돌이 곧잘 친구를 놀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유아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흔히 있는 문제입니다.
- 놀이에서 상황과 사물의 가작화를 충분히 경험해 보았나요?  
놀이 기술이 부족한 영유아들은 놀이에서 다양한 역할과 상황을 만들지 못하고, 놀이가 곧잘 중단되어 놀이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 합니다.
-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요?  
자신이 속한 반과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집단 내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을 때 긍정적인 자아감을 갖게 됩니다. 아주 어린 영유아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친구를 시켜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 이렇게 도와주세요

- “철이는 아기 역할은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친구들은 아기가 필요하다고 하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어 영유아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게 합니다. 선생님이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우는 친구 입장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우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 “너희들 같이 놀 수 없어서 마음이 안 좋구나!”  
양쪽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영유아들의 감정을 모두 읽어주어야 합니다. 따돌린 영유아들이나 따돌림을 영유아 모두 함께 포함하여 마음을 읽어줍니다. 양측이 모두 미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아기 하기 싫으면 다른 역할 중 어떤 걸 해볼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함께 의논해봅니다. 놀이의 상황, 물건, 인물 등의 가작화를 제안해보는 것은 놀이를 풍성하게 하고, 놀이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손님이 누구니? 선생님이랑 훈이도 초대해주세요’ 훈이와 함께 놀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봅니다.

■ “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역할 놀이에 합류하는 것은 영유아기의 어린 나이에 어려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통해 친구들의 놀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선생님이 먼저 적절한 역할로 놀이에 합류하고 해당 유아에게 자신이 하던 역할을 넘겨준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듯 보이네요.

■ “철아, 네가 우리 반이어서 참 좋아.”, “영이야, 선생님은 영이 사랑해요!”

일상 중에 평상시 친구를 따돌리며 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해줍니다. 반에서 소중한 친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과 함께해요**

- 가정에서 자녀가 애정 철회를 습관적으로 경험하면, 어린이집에서 쉽게 친구를 따돌릴 수 있습니다. ‘애정 철회’라는 것은 자녀에게 순응적 태도를 요구하나, 자녀가 이에 불응할 때 ‘그러면 철이랑 엄마는 안 놀아’, ‘그러면, 영이랑 놀이터 안 갈 거야!’ 라면서 자녀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잘 토라지면서 자신의 뜻에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 놀아준다니, 사랑하지 않는다니 하면서 언어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을 보이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원하는 것을 얻으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 친구가 놀아주지 않는다면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잦다면, 자녀의 또래관계 기술이 증진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가까이에서 비슷한 놀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친구에게 매달리거나 따라다니면 오히려 불편감을 주게 됨을 알려줍니다.





### 4. 친구를 때리기





### 영아 이해하기

- 미끄럼틀 못 타게 하니까 미워!  
영아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친구가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 나는 말로 했는데 친구는 때렸어요.  
영아는 '전능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맘대로 주장하고 요구하면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 때렸는데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아직 못해요.  
영아는 아직 규범과 약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친구를 때릴 때도 그리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 유아 이해하기

- 갑자기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친구를 우발적으로 때리는 행동은 영유아들이 사회화 경험이 부족하여 자주 일어나는 실수 행동입니다.
- 친구가 새치기 한 것보다 내가 때린 것만 잘못했다고 해서 억울해.  
이 싸움의 처음 원인을 제공한 건 새치기를 한 친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므로 자신이 친구를 때린 건 잘못했어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억울하다고 느낀답니다.
- 난 항상 이기고 싶어요. 지기 싫어요!  
지는 사람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유아들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친구에게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는 것이 싫어서 순간적으로 분노를 느끼고, 이 분노는 공격행동을 일으킵니다.



### 교사 이해하기

- 놀이터에 나오지 말아야겠어.
- 어떤 아이를 먼저 챙겨야 할까?





## 전문가의 조언

### 점검해보세요

- 실외놀이의 시간과 놀이감이 충분한가요?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자기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고 싶는데 시간의 양이 부족하면 영유아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급한 마음에 규칙과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 영유아의 의사소통과 협상 기술이 또래에 비해 낮은가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는 자기표현과 대안 제시 등의 협상 기술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유아들은 아직도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의사소통 기술이 익숙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해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 놀이터 규칙의 필요성과 내용을 영유아들이 숙지하고 있나요?  
여럿이 함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과 규칙에 대한 영유아들의 인지하면 자기 조절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 규범의 필요함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인지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힘이 센 친구들이 기회를 더 많이 누리나요?  
영유아들의 크고 작은 공격에 대해 허용적인 분위기라면 이와 같은 행동은 모델링 효과를 가져와서 센 힘을 가지고 우두머리가 되려는 욕구를 부추기게 됩니다.

### 이렇게 도와주세요

- “애들아 잠깐! 미끄럼틀에서 일단 내려오자!”  
먼저 영유아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좁고 위험한 공간에서 영유아들이 서로 손이 닿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며 분리시켜 놓습니다.
- “미끄럼틀 재미있게 타고 싶었는데 친구랑 다투게 돼서 속상하구나!”  
두 영유아의 마음을 함께 읽어줍니다. 눈물을 흘리는 영유아나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진 영유아나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감을 해줍니다.
- “친구를 때리면 친구가 다칠 수 있단다.”  
놀이의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로 꼭 지켜야 할 긍정관계선을 제시합니다. 한계를 제시할 때는 이유를 함께 설명하여 영유아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 “차례대로 타지 않아 화가 많이 났구나!”  
두 영유아가 당면한 문제(사실)를 비난 없이 말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분노한 상태에





서 영유아를 비난하면 영유아들은 또래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선생님과의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 “미끄럼틀 타는 순서를 어떻게 정하지?”

두 영유아에게 긍정적인제언(한 사람씩 타기)을 제시하면서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가위 바위 보로 정하기’, ‘양보하는 친구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타게 해주기’ 등 영유아들이 의논해서 정해보도록 중재합니다.

■ “친구가 아파하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일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로만 미안하다는 것은 습관처럼 반복되어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친구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아픈 곳을 마사지 해주기, 친구가 도움 필요할 때 곁에서 잘 도와주기 등과 같은 보상적 행동을 기꺼이 하도록 안내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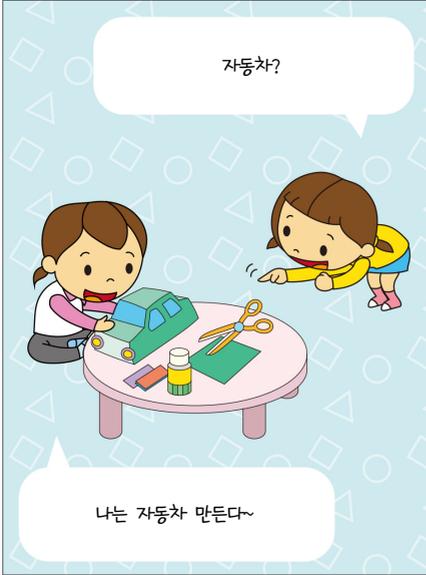
**가정과 함께해요**

- 싸움을 잦은 것은 그만큼 또래와 접촉이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래와 함께 지낸다고 해서 친구 사귀는 기술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친구와 자신의 갈등을 인지하고 서로 배려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 “다른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그러면 너도 맞는다!”며 화를 내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런 훈육은 자녀에게 공격행동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맞고 자랄수록 분노가 쌓이고, 자기조절의 연습할 기회가 적어져 공격적인 성향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 의사소통 기술이 발달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 기회를 주세요. “너 이거 하고 싶어? 나도! 그럼 우리 같이 하자.”라고 상대방과 공동체감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을 자주 경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만 친구에게 맞는다며 맘이 많이 상하시겠지만, 보복 행동을 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래와 사귀는 방법을 가르쳐주려는 어린이집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5. 친구에게 욕하기





### 영아 이해하기

- 친구가 나랑 안 놀고 혼자 만들기 하니까 기분 나빠졌어요.  
영아반에는 병행 놀이가 많이 이루어지나, 영아들은 가끔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시도합니다. 때론 이런 시도가 친구를 방해하여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 욕은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는 새로운 말이에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화를 내거나 짜증 낼 때 어린 영아들은 울음과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들었던 말과 정황에 대한 주의 깊은 인지는 영아가 지연 모방을 하게 합니다. 말을 배우게 되면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유아 이해하기

- 친구가 나보다 못하면서 잘난 척했어요.  
친구와 경쟁하면서 친구보다 잘한다는 칭찬을 받으면서 인정받으려는 영유아들은 다른 친구의 성취를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 나쁜 말하면 친구들이 겁먹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져요.  
욕을 했을 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봐주면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듯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어 점점 더 센 욕을 크게 하게 됩니다.
- 갑자기 화가 치솟으면 욕이 나와요.  
정서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어서 심리적인 허기가 많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분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 처하면 언어적인 공격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 교사 이해하기

- 좋은 말을 배워야 할텐데...
- 이럴 때는 놀라는 모습보다는 무시하는 방법이 좋을까?





## 전문가의 조언

### 점검해보세요

- 영유아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반에서 자신이 중요한 친구인지, 선생님을 놀라게도 할 수 있는 통제력이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클 때 부정적인 방법으로 주의를 끄는 행동으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어디서 욕하는 것을 보고 배웠을까요?  
최근에 많은 미디어에서 욕, 비속어, 유행어 등을 사용하여 대중의 간접 충족감을 느끼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형제들, 어른들끼리의 통화에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 분노 표현의 양상은 어떤가요?  
일과 중에 영유아가 경험하는 갈등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영유아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많이 내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실패감을 많이 느끼는지, 거절감을 느꼈을 때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있어서 욕을 하면서 쾌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도와주세요

- “(단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순이도 영이도 그만! 잠깐만 생각해보자.”  
두 영유아를 바라보며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었음을 확인 시켜줍니다.
- “친구 마음 들어볼까?”  
영유아들이 자기가 경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들어봅니다. 언제부터 기분이 안 좋았는지 이야기 나누어봅니다. 기분이 나빠진 제일 큰 이유는 친구가 욕과 나쁜 말을 했을 때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 “우리 열매반은 친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하지 않아요! 친구가 많이 속상하니까요.”  
욕을 하면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영유아가 속한 공동체인 반의 약속임을 말해주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임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영이와 철이가 친구들에게 기분 상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교사의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 “화가 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욕으로 화가 나는 것을 표현하는 대신 친구에게 “~했기 때문에 나 정말 화가 났어.” 하며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 “어떻게 하면 기분이 풀어질까?”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도 알려 주세요. 점토나 모래, 물 등의 가변적이고 감각적인 재료로 놀이하는 것도 기분을 푸는데 도움이 되고, 바람이 빠진 말랑말랑한 풍선을 만지는 것, 폭신한 쿠션에 몸을 기대는 것도 긴장을 풀어줍니다. 숫자 5까지 세며 심호흡 연습하기, 아무도 방해 받지 않는 숨은 공간 만들기 등 평소 화가 날 때의 대안을 마련해 주고 영유아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과 함께해요**

- 어린이집에서 욕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가정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유아의 욕하는 행동의 양상을 잘 관찰하여 가정과 함께 방안을 논의합니다.
- 성인용 TV나 동영상 등의 자극적인 매체에 노출되어 무지 불식간에 영유아가 욕을 배우게 됩니다. 당분간 가족회의를 통해 영유아의 TV와 인터넷 매체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영유아 앞에서는 가족 간 대화도 조심하기 바랍니다.
- 갑자기 사소한 일에 거칠게 화를 내거나 분노 조절의 어려움을 보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녀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꿉놀이,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을 하면서 걱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동생의 출생, 이사 등의 중요한 변화는 영유아를 긴장하게 하고 불안정하게 합니다. 욕이나 공격행동 증가, 배변 조절의 어려움 등 이면에는 생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믿어 불안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IV.

### 방해·비참여 영유아를 위한 대안적 훈육

1. 흥분하여 과잉행동하기
2. 금방 싫증내며 산만해지기
3. 반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기
4. 관심 끌기 행동으로 활동 방해하기
5. 선생님하고만 있으려 하고 또래와 어울리지 않기





# IV 방해·비참여 영유아를 위한 대안적 훈육

## 1. 흥분하여 과잉행동하기





### 영아 이해하기

- 나비처럼 날아보는 것 재미있어요.

영아기는 감정과 신체를 조절하는 면에서 미성숙한 상태로 타인에 의해 주의 전환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영아기 자기조절 능력은 동일 월령임에도 크게 차이 날 수 있고 그날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 배고프지 않아요. 조금 더 날아 봐도 될까요?

영아는 자신이 집중하는 활동을 할 때 배고픈 것이나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리적 욕구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심시간은 식사를 하는 시간으로 음식에 흥미가 없고 신체활동에 더 재미를 느끼는 영아라면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신의 흥미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아 이해하기

- 나비처럼 날아보는 나의 모습 멋지죠?

유아들은 과잉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주목시킬 때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주인공이 되는 것과 같은 관심 충족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점심 먹기 전까지 조금 더 나비 되는 놀이하고 싶어요.

인지능력 및 자아의 성장에 따라 유아들은 상황 파악 능력이 향상되고 자기주장도 강해지게 됩니다. 질문도 많고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 때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 교사 이해하기

- 저러다 사고 나면 안 될 텐데..
- 다른 친구들까지 따라 하면 안 될 텐데...





## 전문가의 조언

### 점검해보세요

- 또래들보다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는 미숙함이 있나요?  
발달 문제 등으로 자기통제나 규칙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 언어발달이 지연되거나 인지발달이 더딘 영유아의 경우 등 규칙 지키기와 같은 자기통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교사가 언어로 상황 제한을 하기보다 영유아에게 다가가서 다음 활동 참여를 부드럽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좁은 공간에서 나비 놀이를 충분히 못한 것 아니었을까요?  
친구들이 손을 씻으러 나간 넓은 공간이 자신이 해보고 싶던 활동을 비로소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공간 확보이고 기회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 음악에 맞추어 춤추기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가요?  
평소 나비와 같은 곤충을 좋아하거나 음악과 동작이 있는 음률 활동에 흥미가 높았던 경우, 해당 영유아가 자신이 관심이 많거나 흥미가 높았던 활동을 하는 경우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는 데 다른 또래보다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 이렇게 도와주세요

- “나비 놀이 혼자 하니까 넓고 좋았구나.”  
좁은 공간에서 나비 놀이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고 느끼는 영유아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점심시간 끝나고 나비 놀이 다시 해 봐요!”와 같이 하고 싶은 활동을 허락된 시간에 다시 해 볼 수 있도록 제안하는 편이 영유아가 욕구를 통제에 도움이 됩니다.
- “철이는 나비를 좋아하지요?”  
해당 영유아가 평소 나비와 같은 곤충을 좋아하거나 음악과 동작이 있는 음률 활동에 흥미가 높았던 아이라면 교사가 그것을 기억하여 언급해주면 영유아는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 볼 수 있는 유연한 모습을 보인답니다.
- “철이는 친구들에게 멋진 나비를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식사시간이에요.”  
다른 친구들까지 방해 행동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해 행동을 하는 영유아 주변으로 가서 관심을 보이는 또래들을 먼저 식사 준비활동으로 보내고 방해 행동을 했던 아





---

이에게는 “나비 활동을 멋지게 잘 했구나. 지금은 점심을 맛있게 먹는 시간이고 이후에 다시 즐거운 활동을 하게 될 거야!”라고 긍정적인 행동의 결과를 언급하고 이후 활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제공해서 영유아의 행동 통제에 도움이 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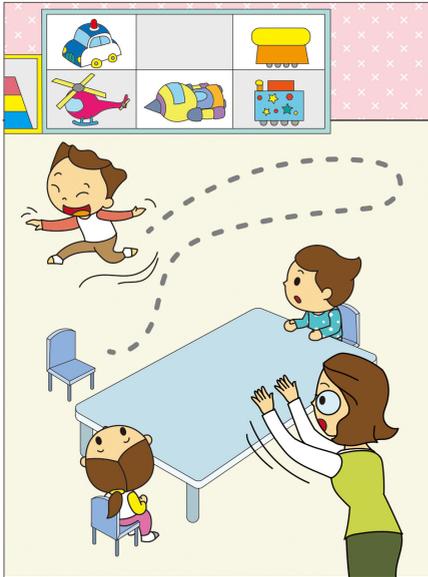
### 가정과 함께해요

- 기질적으로 흥이 많은 영유아는 감정의 폭이 넓어 기분이 자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영유아도 재밌고 즐거우면 계속 반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여 바로 집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발달적 특성임을 이해하시고 조금씩 자기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놀이 계획이나 일상생활 계획을 함께 짜면서 자신의 할 일의 순서를 정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유아가 도전했을 때 실천 가능한 계획이어야 하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자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정해진 만큼 놀이 하고 정리하기 등은 바람직한 감정체계와 자기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2. 금방 싫증내며 산만해지기





### 영아 이해하기

■ 너무 길어요! 언제 끝나요?

영아기에는 지속적으로 흥미를 끌어가며 적정시간 프로그램을 끌여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활동이 진행되는 20~30분 동안에도 2~3번 정도는 다른 곳에 주의를 돌리는 모습은 일반적인 영아의 반응입니다.

■ 재미없어요. 다른 활동해요.

영아기에는 주의의 폭도 좁고 집중시간도 짧은 편입니다. 더욱이 흥미를 못 느끼는 놀이일 때 집중시간은 더 짧아지고 자리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보이게 됩니다.



### 유아 이해하기

■ 보고만 있는 것은 재미없어! 듣고만 있으면 졸려요!

유아의 수업에서는 가능한 유아가 항상 수업의 중심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수업내용이 자신에게 전혀 흥미 없는 내용일 때 아이들은 딴청을 피우거나 혼자놀이를 하는 것으로 자기중심적 문제해결점을 찾곤 합니다.

■ 나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교사가 수수께끼를 내는 동안 주의가 산만한 영유아는 듣고 생각하고 자신이 답할 차례를 기다려야만 하는 모든 과정을 힘들게 느낍니다. 옆 친구와 잡담을 나누거나 의자를 흔들며 몸을 계속 움직이는 등 유아는 교사에게 이 시간이 지루하고 견디기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 너무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선생님의 수수께끼가 너무 어려워 자신이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유아는 좀 더 재미있는 것은 없을까? 적극적으로 주변을 탐색하게 됩니다.



### 교사 이해하기

■ 다들 잘 집중하고 있었는데..수업분위기를 모두 망쳐놓았네.

■ 나쁜 행동이 반복되거나 다른 아이가 모방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 전문가의 조언

### 점검해보세요

- 창이나 문 가까이 앉아 있나요?  
창이나 출입문이 있는 곳은 산만해지기 좋은 자극적인 공간입니다. 주의가 산만한 아이는 선생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 산만한 아이들의 그룹이 함께 앉아 있나요?  
산만하고 과잉 행동하는 아이들은 흩어져서 앉아 있어야 수업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가 산만한 아이가 마주 앉아 눈 마주침이 되거나 옆에 앉아 몸으로 장난을 시작한다면 주의를 집중시키기 더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 기분이 상해 있는 상황인가요?  
수업 이전에 누군가와 다투거나 혼란 상황일 경우에는 기분이 상해 있을 것이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활동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 이렇게 도와주세요

- “그럼 철이가 수수께끼를 내보도록 할까?”  
아이들은 타인의 활동을 관찰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탐색하거나 참여하는 활동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집중력이 짧은 산만한 아이는 선생님의 진행을 따라가는 것이 더욱 힘들겠지요. 따라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이번 달 생일 파티했던 친구가 누구였지요?” 등 수수께끼나 퀴즈를 직접 맞춰볼 수 있도록 하여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철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는 누구일까요?”  
산만한 아이는 관심과 사랑에 배고파해요. 집중력이 짧은 아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물어 답해 보게 하거나 그 아이에 관한 질문을 만들어 다른 아이가 맞춰보게 하는 등 영유아가 서로에 대한 집중과 관심 주고받기를 해볼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유익하답니다. 또한 “이번엔 영이가 맞춰보자” 등 놀이 진행 시 아이의 이름을 불러 주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와서 앉아볼까?”

아이들은 주위에 다양한 자극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자극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교실 안에 있는 다양한 장난감들, 옆에 앉은 친구가 입은 옷이나 머리핀 등이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겨 주위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가정과 함께해요**

- 싫증을 금방 내는 자녀와 지내기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기질의 아이라면, 탐색에 대한 욕구가 넘치므로, 금방 바뀌는 영유아의 흥미를 따라가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흥미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세요. 자녀가 점토나 색종이로 무언가를 만들면, 부모나 형제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모방 놀이를 해 보세요. 가족들이 영유아의 행동에 집중하고 모방하는 활동은 영유아의 긍정적 자아감과 조절 능력 향상에 유익한 활동입니다.
- 무언가 끝가지 주도적으로 하여 완수한 것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 기념해보세요. 자랑 가득한 일기나 앨범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장점을 들려주거나 자랑스러운 점을 적어 냉장고나 벽에 예쁘게 붙여보세요. 특히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여주며 당시의 모습을 이야기 나누거나 적어보는 활동은 긍정적 자아감과 자기통제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 3. 반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기





### 영아 이해하기

- **심심해. 뭐 신나는 일 없을까?**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성 및 공감능력 발달에서 미숙한 영아기에는 타인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타인과 놀이의 재미나 관심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싫어요.**  
영아기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이 미숙하여 적절하고 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도 생각한 그대로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서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당연한 교사의 역할이지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늘 듣게 되면 영아의 ‘반항심’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 **그림 그리기가 제일 싫어요!**  
영아들이 편식을 하듯 활동도 좋아하는 활동과 싫어하는 활동에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유아 이해하기

- **위험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유아들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 보는 것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형성해 갑니다. ‘미운 7살’이라 불리는 자기주장이 강해지는 유아기가 이제는 4-5세 연령까지 내려온 느낌이에요.
- **내가 의자에서 안 내려오면 어떨까? 선생님한테 혼날까? 무서울까? 위험할까?**  
유아는 의자 위에 올라가면 교사에게 혼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는 이 활동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욕구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도 불편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불편할 때 유아는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리기 힘들겠네요.
-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 내가 결정하고 싶어.**  
어떤 유아에게 누군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은 너무 힘들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다가도 “남기지 말고 꼭꼭 씹어 먹어요!”라는 교사의 부드러운 권유에 마음이 틀어져 반에서 가장 빨리 밥을 먹어버리는 유아도 있습니다.



### 교사 이해하기

- **다치면 큰일인데 행여 사고가 날까 걱정이예요.**
-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말대꾸도 많이 하고 버릇이 될까 걱정이야.**





## 전문가의 조언

### 점검해 보세요

#### ■ 아이가 의자에 올라가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수업시간에 수업 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탈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의자에 올라갔는지 묻고 교사의 시각에서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한다면 교사와 영유아간의 적절한 이해와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싶어 하나요?

자율성을 발달시키려는 영유아에게는 종종 자신이 주변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뺏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곧잘 친구들은 웃고, 선생님의 기분을 갑자기 나빠지기 때문에 영유아의 내면에서 힘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 ■ 불쾌할 때 습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나요?

발달지체나 자폐성향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또래와 깊은 관계를 갖기 힘들고 무언가 불안하거나 불쾌할 때 일어나거나 높은 곳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언어로 지시하기보다 교사가 안전하게 손을 잡아주고 내려 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 별다른 이유없이 충동적인가요?

ADHD의 과잉행동은 영유아의 의지로 조율할 수 없는 충동적 특성을 보입니다. 문제행동을 멈추게 하기 보다 대안활동을 제시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이렇게 도와주세요

#### ■ “철이는 올라가는 것 좋아하지요? 미술도 재미있게 해보자!”

영유아가 느끼는 갈등 감정을 표현해 주고 어려운 감정에 함께 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탁자의 물 컵을 아이가 엮지를까 봐 교사가 치워주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 일어난 후 “그럴 줄 알았어. 선생님이 다친다고 했지?”라고 나무라기보다 “철이가 놀고 싶구나! 미술 끝나고 모두가 즐거운 놀이해보자!” 유아의 욕구가 선생님께 잘 전달 되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저항행동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철이 이제 내려오자! 떨어지면 다쳐요!”

지시적 언어 사용이 영유아에게 반감을 주는 상황이라면 이 아이는 “OO하지 마”라는 부정 명령형의 문장보다 “OO 하세요.” 라는 긍정문을 사용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저항심이 강한 영유아에게는 역설적인 기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아이를 앉히기보다 다른 친구들을 일어나게 해서 즐거운 역동적 활동으로 교사가 리드해주면 자연스럽게 집단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 “이따 바깥놀이 나가서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자!”

~하지 말자고 할 때에는 긍정적인계선을 제시하며, 대안 행동을 제안합니다. “~책상 위에 올라가지 말자~”라고 하고 나서 “~는 해도 된다.” 라는 욕구인정의 대안을 제시해야합니다.



**가정과 함께해요**

- 자율감이 많아져 ‘전능한 자아’라고 까지 불리는 만 2세 전후에는 어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반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아감 발달의 시기에는 긍정적인계선 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 먹자! 국 먹을까? 반찬 먹을까?”, “옷 입고 놀이터에 갈까? 자전거를 탈까?” 라고 하면 필요 동기 내에서 자율감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 저항감이 심각할 정도로 통제가 어려운 경우는 긍정적인 애착관계가 되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녀와 단둘이 지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자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놀아줍니다. 자녀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충분히 몰입하여 놀아주면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 가정에서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방임적이면 자녀가 규범인식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통제적으로 거칠게 훈육을 받았어도 어린이집에서의 긍정적인 훈육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선생님이 화를 낼 때까지 어긋나게 행동하는 영유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민주적인 훈육으로 자녀의 책임감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 4. 관심 끌기 행동으로 활동 방해하기





### 영아 이해하기

- 선생님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 재미없어요.  
영아기에는 언어표현이나 이해 능력에서 개인차가 심한 편이지요. 발달이 지연된 영아는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가기 어렵고 프로그램을 이탈하곤 합니다.
- 내가 하는 행동으로 친구들이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친구들이 자신을 보고 웃고 즐거워한다면 영아의 시각에서 좋은 행동이라 여기고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 선생님이 나만 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초기 애착을 형성하는 영아기는 양육 대상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혼나더라도 교사의 집중을 받는 못된 행동을 선택한 영아라면 그만큼 교사의 관심이 절실했던 것 같네요.



### 유아 이해하기

- 나는 특별히 얘기할 주말 이야기가 없어서 심심해요.  
주말에 엄마와 아빠가 다투셨거나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는 아이들은 주말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만 빼고 친구들만 행복한 것 같아 보여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 나는 게다리 춤을 재밌게 출 수 있어요.  
발표를 잘하는 친구가 부럽거나 선생님과 친구들이 발표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주며 주의 집중해주면 그것이 부럽거나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자신도 잘하는 무언가로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 교사 이해하기

- 겨우 집중시켜냈는데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져서 힘들어요.
-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런 애를 어찌면 좋아요.





## 전문가의 조언

### 점검해보세요

#### ■ 집단 활동 시간에 특히 돌출행동을 자주 하나요?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지 활동 특성이나 시간대를 체크하세요. 문제가 발생한 후 훈육하는 것 보다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교사와 영유아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교사가 전후 상황을 파악한 후 주의를 기울여 원인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 ■ 관심이 필요한 일이 아이에게 생겼나요?

충분한 애정이 부족하다거나 자신이 받아왔던 관심이 다른 곳(예를 들어 동생)으로 이동한 것은 아이에게 애정과 관심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이런 방해 행동으로 한 번에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미소를 얻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강화됩니다.

#### ■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아이인가요?

활달하고 적극적인 아이는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풀어낼 필요가 있어요. 자유로운 놀이 시간에 안전한 범위 안에서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 이렇게 도와주세요

#### ■ “(낮은 목소리 톤으로) 철아, 우리는 지금 영이 주말 지낸 이야기 듣고 있어, 철아 영이 이야기 들어 볼까?”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 시간임을 알려주고, 기대하는 행동을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이때 단호한 표정과 목소리로 해야 합니다. 웃으면서 말하면 다른 영유아들도 영이가 따라 합니다. 이야기 나누기보다 개다리 춤추기가 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 ■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아이참 재미있다!”

이미 너무 많은 아이가 관심을 보인 상황이라면 선생님이 문제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여볼 수 있는 '나처럼 해봐요'나 입모양만 보고 동물 이름을 맞추기와 같이 주의를 교사에게 다시 전환시켜 활동의 주도권을 유지합니다.





■ “철이가 밝게 웃으니 선생님도 기분이 좋아진다.”

선생님과 단둘이 있을 때, 좋은 점을 이야기해줍니다. 특히 열심히 노력했던 것에 관심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선생님 오늘 입은 옷 색깔이 어때니?” 와 같이 개인적인 관심사도 나누어 친밀감을 갖도록 합니다. 수시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서 아이가 선생님과 특별한 관계를 경험하고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정과 함께해요**

- 사람에게는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나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따뜻한 사랑과 함께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아 ‘심리적인 힘’을 강하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함박웃음을 지어주기 때문에 매우 만족감이 커집니다.
-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보여주는 작은 성취마다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 것 없이 미숙하여도 영유아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이고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 어떻게 했기에 성공 한거니? 대견스럽구나!”
- 부정적인 행동으로 관심 끌기를 보이는 아이들은 주변의 긍정적 관심으로 주의를 끌 때 만족스럽지만 다소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칭찬 통장이나 칭찬 일기를 쓰면서 지속적인 칭찬과 관심을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주고받으며 공유해봅니다. 부모님의 시선도 선생님의 시선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아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으로 자신을 조율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루 두 번 이상 께안아주세요. 사랑과 관심은 언어보다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은 아이를 더욱 안정적인 정서 상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 안고 자장가 불러주기 아이 안고 아침에 깨워주기 등 마음을 전달하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을 가정에 제안해 보세요.





### 5. 선생님하고만 있으려 하고 또래와 어울리지 않기





### 영아 이해하기

- 아이들 보다 어른이 더 좋아요.  
어른은 나에게 맞춰 주지만 친구들은 장난감을 빼앗는 등 갈등의 소지가 많아 친구들보다는 선생님과 노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 어린이집에선 선생님이 엄마가 되어 주세요.  
아직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엄마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으로 선생님을 엄마처럼 생각해서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 유아 이해하기

- 친구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회성 발달이 늦거나 놀이 기술이 부족한 경우 친구들이 놀이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친구들과 노는 건 피곤하고 힘들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이를 할 때는 지켜야 할 규칙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도 해야 합니다. 이런 갈등을 힘들어하는 유아는 친구들과 노는 걸 회피하고자 합니다.



### 교사 이해하기

- 아직도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다른 아이들과 너무도 달라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 계속 받아주면 선생님만 따라다니는데 부적응행동이 강화될까봐 걱정이에요.
- 무언가 애정 욕구가 결핍된 것 같은데 어떻게 채워 줘야 할지 어려워요.
- 이 아이만 돌볼 수 없는데 늘 따라다니니 저도 지치고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네요..





## 전문가의 조언

### 점검해보세요

- 아침 등원 시에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힘들어하나요?  
등원 시에 분리불안이 있고 어린이집 안에서도 선생님만 따라다닌다면 애착관계의 불안정성 여부를 조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진단 아래 전문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후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성 및 조절 능력 발달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이가 처음부터 낯가림이 심했나요?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 심해진 상황인가요?  
영유아기는 자신의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보다는 관찰을 통해 영유아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렇게 도와주세요

- “철이야? 영이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지?”  
아이는 아직 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몸으로 표현하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독립을 제안하는 것은 불안감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한 기대와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가고 선생님과 2인 관계보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3인 관계 또는 4인 관계로 놀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며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 “영이는 ~을 참 잘하는구나!”  
영유아가 뛰어난 발달을 보이는 영역을 찾아 칭찬해 주고 격려해서 어린아이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확장해 볼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먼저 놀이를 하려고 하지 않는 소극적인 성향이 강하다면, ‘요요’나 ‘자석 낚시놀이’ 처럼 혼자서도 쉽고 간단하게 반복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놀이를 권합니다.





## 가정과 함께해요

-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의존성과 밀착의 욕구가 많은 영유아에게는 대상과 떨어졌다 다시 만나는 놀이를 해봅니다. 집안 공간에서 숨고 찾는 놀이가 다소 위험할 수 있는 나이라면 포장된 사탕이나 카라멜을 숨겼다가 찾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몸에 숨기고 아이가 찾는 놀이를 한 후 아이가 찾은 사탕이나 카라멜을 먹여주세요. 영유아의 몸에 숨긴 사탕이나 카라멜을 엄마 또는 아빠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 몸에 숨기고 찾는 놀이를 할 때는 상체에만 실시하며 만지면 민감할 수 있는 몸통에는 숨기지 않습니다.
- 반 친구들을 가족에게 소개하기는 자녀가 유의미하게 여기는 또래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자신과 같은 반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아이의 관심과 특징을 부모와 나누면 점차 새로운 학급의 또래들에 대해 이해하고 정서적 친밀감을 세워 나가는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 여러 가지 색의 색종이를 바닥에 붙이고 자녀가 한 가지 색을 선택하여 서면 다른 가족원들이 자녀와 같은 색의 색종이를 찾아 서보는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던 영유아에게 온 가족이 집중하고 따라다니는 활동을 통해 관계의 근접거리를 유지하고자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2권] 선생님-아이-엄마아빠 함께 배워요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실천하기

## V.

###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한 영유아

1. 발달이 늦는 영유아
2. 주의가 지나치게 산만한 영유아
3. 공격행동이 두드러지는 영유아
4. 강박 성향을 보이는 영유아
5. 어린이집, 부모, 전문가의 협력







##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한 영유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들은 일반적인 훈육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가 많으며, 교사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게 되어 다른 영유아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유아자신과 또래 영유아 또는 교사의 안전에 위협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는 특성을 파악하여 부모의 협력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특별한 요구에 맞는 지원과 지도를 해야 합니다.

### 1. 발달이 늦는 영유아



#### 사례

만 3세반에 다니는 철이는 또래에 비해 언어발달이 늦은 편이다. 문장으로 말을 하지만 입을 거의 벌리지 않고 우물우물 말을 하여 거의 첫 단어만 들린다. 노래를 불러도 소리만 지르는 것 같이 들린다. 자신의 의사를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니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일이 잦다. 또한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철이는 바지에 소변을 보고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담임교사는 철이의 어머니께 기저귀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어머니는 철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할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며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다. 담임교사 A는 철이를 배려하여 전이시간마다 철이가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보내다보면 철이를 챙기지 못할 때가 많다.



#### 점검하기

또래에 비해 자신의 자녀가 발달이 조금만 늦어도 부모들은 마음이 급해지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각에 따라 영유아기 발달이 다소 늦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발달검사를 통해 발달지연 여부를 조기 검진하고 치료한다면 장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영아기는 한 달이 다르게 새로운 변화를 보이는 시기로 특정 영역의 발달지연이 다른 영역에 발달지연으로까지 영향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유아기 발달은 크게 언어 및 소통 능력과 운동 및 조절 능력이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발달지연 문제를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월령별 대표적 활동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유아의 월령별 발달과정과 비교해 보시고 2-5개월 발달 속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전문가의 발달진단을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 영유아기 발달지연 비교 준거

#### - 언어능력발달

언어 발달은 개인차가 많아 부모들도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면 진단을 꼭 해보고 아이의 수준을 알아야합니다. 언어 발달은 대부분 뇌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 언어능력발달 기준<sup>1)</sup>

- 0-5개월 : 웅얼이를 한다.
- 6-8개월 : 소리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 9-12개월 : “마마” “빠빠” 소리를 낸다.
- 13-18개월 : 신체부위를 들고 손으로 가리킨다.
- 19-24개월 : 원하는 바를 말로 표현한다.(한 단어 문장)
- 25-30개월 :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
- 21-36개월 : 두 세단어의 문장을 말한다.

#### - 동작능력발달

대부분의 아기가 약 5개월이 되면서부터 운동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고 뒤집기를 하곤 합니다. 이렇듯 영유아들의 운동 발달 능력도 일상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을 통해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심하게 늦어진다거나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한국형 영유아발달검사」를 기초하여 재구성





### 동작능력발달 기준<sup>2)</sup>

- 0~5개월 : 몸 뒤집기를 한다.
- 6~8개월 : 혼자 앉아 있다.
- 9~10개월 : (무릎으로) 기어 다닌다.
- 11~12개월 : 손을 붙잡아 주면 서거나 걸을 수 있다.
- 13~18개월: 손가락을 이용해 물건을 잡는다.
- 19~24개월: 병속에 물건을 집어넣는다.
- 25~30개월: 계단을 오르내린다.
- 21~36개월: 뛰어다닌다.

- \* 영유아의 월령별 발달과정과 비교해 보시고 6개월 이상 발달속도에서 차이를 보 인다면 전문가의 발달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 \* 어린이집의 영유아의 경우 배변훈련이 완성되는 시기에 있어 개인차를 크므로 배 변 이외의 부분에서 발달지연이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편이 정확할 수 있습 니다.

2) 「한국형 영유아발달검사」를 기초하여 재구성





## 지도방법

앞서 살펴본 철이의 사례에서는 의사표현 능력과 배변훈련 시기가 모두 발달지연을 보이는 경우이지만 발달이 늦은 영유아의 경우 언어 또는 운동능력 등 특정 영역에서만 발달지연을 경우가 있습니다.

### - 언어영역에서 발달지연을 보이는 경우

대체적으로 언어는 표현언어(말하기, 쓰기)에 앞서 수용언어(듣기, 읽기)가 발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언어능력은 보다 많은 언어자극과 모방을 통해 발달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가정이나 보육교실에서 아이의 비언어적 행동을 교사나 부모가 언어로 표현해 줌으로써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언어표현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발달이 다른 또래에 비해 5-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 언어치료를 통해 언어구사능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운동영역에서 발달지연을 보이는 경우

#### \* 운동능력 지연을 보이는 경우

대근육 운동에서만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는 감각통합치료를 통해 감각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시·지각 협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편이 좋습니다.

#### \* 소근육 운동까지도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감각통합활동을 통해 운동능력과 감각-운동간 협응능력 향상을 도울 뿐 아니라 놀이치료를 통해 다양한 놀이기구를 조작해 보는 즐거움과 놀이를 통한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시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 언어와 운동 전반에서 발달지연을 보이는 경우

발달장애 또는 전반적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경우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또래 표준발달능력에서 몇 개월 정도 발달지연이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유아기 5-6개월 이상의 발달지연을 보인다면 필요에 따라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발달놀이치료 및 치료놀이 등 정서사회성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2. 주의가 지나치게 산만한 영유아



### 사례

만 5세반에 다니는 영이는 또래와 함께 하는 놀이에 거의 참여를 하지 못한다. 놀이 시 주변 친구들을 밀치거나 때리거나 장난감을 던지는 행동이 잦고, 교사가 제지를 해도 행동을 쉽게 멈추지 않는다. 의자에 앉거나 자리에 앉아서도 손과 발을 계속 움직이며, 의자나 책상에 올라가서 자주 뛰어내리어 친구들과 부딪히거나 다치는 일이 잦다. 함께 신체 게임을 해도 차례를 기다리기 힘들어하고 다른 친구들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또래들이 교사에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



### 점검하기

영유아기에는 집중력이 짧을 뿐 아니라 충동적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잉·충동적 행동, 주의력 부족 등의 특성은 같은 월령에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고, 취학 전 시기인 영유아기에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사실 주의력 결핍성 과잉행동장애(ADHD)라고 진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아동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주의력이 부족할지라도 이러한 행동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고 단기간 동안 나타난다면 ADHD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사가 교실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유난히 산만하거나 잠시라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유아를 발견하게 된다면, 부모와 상의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 ADHD 진단 기준<sup>3)</sup>

- 주의력 결핍(Inattentive)
  - 1 부주의한 실수를 잘함
  - 2 집중을 오래 유지하지 못함
  - 3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지 못함
  - 4 과제나 시킨 일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함





5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

6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자주 잊어버림

- 과잉행동/충동성(Hyperactive Impulsive)

1 다른 사람의 활동에 끼어들거나 방해함

2 제자리에 있어야 할 때 마음대로 자리를 뜰

3 끊임없이 움직임

4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함

5 질문이 끝나기 전에 불쑥 대답함

6 차례를 못 기다림

\* 평가 기준

- 두 부류의 행동특성에서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행동을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

- 7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증상이 가정과 어린이집 등 두 가지 이상의 공간에서 반복되는 경우

■ ADHD 영유아의 발달 영역별 특성

발달영역	내용
행 동	짧은 주의집중시간, 산만함, 쉬지 않고 움직임, 충동 통제 곤란, 파괴적 성향, 소란
사회성	또래관계 형성 곤란, 지시에 대한 불복종, 공격성/거짓말/도벽, 호전성/공손치 못한 말, 자기통제 결여/위험성 감수,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 결여
인 지	미성숙된 내적언어, 부주의와 산만성, 평균보다 낮은 지능, 양심의 결여,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부족
학 업	지능에 비해 낮은 성취, 학습장애
정 서	우울, 낮은 자존심, 흥분성, 미성숙된 정서통제, 쉽게 좌절함, 예측 불가능/쉽게 변화됨
신 체	미성숙된 발육, 대소변 못 가림, 호흡기 질환 및 중이염, 알레르기 발생률이 높음, 미세한 신체이상, 중추신경계 반응 둔화, 통증을 참지 못함, 낮은 운동 협응력 (미세 근육을 활용하는 글씨 쓰기, 가위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에 어려움을 보임)

3) 「DSM-IV ADHD 진단기준」를 기초하여 재구성





## 지도방법

ADHD는 유아기에 보일 수 있는 아동행동장애의 한 가지로 놀이치료를 통한 정서 및 행동 조율 치료가 요구됩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 약물치료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래와 같은 교사의 노력을 통해 환경적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 ADHD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지도 방법

- 짧게 여러 번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나누어줍니다.
- 수업은 지루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집중을 방해하는 자극 요소를 제거합니다.
- 행동과 규칙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그에 대한 보상(칭찬이나 스티커 제공)을 일관적으로 유지합니다.
- 집단 활동 시 차분한 아이들 곁에 앉힙니다.
- 원을 만들어 앉을 때에는 교사 옆에 앉도록 배려합니다.
- 소집단으로 학습과 대인관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3. 공격행동이 두드러지는 영유아



#### 사례

만 4세반에 다니는 영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을 꼬집거나 물어서 또래 부모들한테 항의 전화가 자주 온다. 놀이를 하다가 친구들이 영이 앞에 놓인 장난감을 만지려만 해도 물기도 하지만 특정한 이유 없이 친구들을 때리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인형을 잘 가지고 놀다가도 인형의 머리카락을 뜯거나 때리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장난감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친구가 영이에게 “넌 왜 정리 안 해?”와 같이 싫은 소리라도 할 때면 영이는 폭발하듯이 앞에 놓인 물건을 집어던진다. 교사는 영이가 친구들을 때리는 이유를 찾기 위해 관찰도 하고 마음을 읽어주려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영이의 공격적인 행동을 줄어들지 않는다.



#### 점검하기

발달의 어느 한 시점이 되면 많은 영유아들이 때리고 물고 할퀴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런 행동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돌 무렵인데 어린아들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시험하는 한 방법으로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걸음마기(15개월-3세)가 되면 자기 자신을 주장하거나 자율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소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언어표현이 아직 미숙하여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것으로 대부분은 언어발달과 긍정적인 훈육으로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어떤 교사들은 영유아가 다른 영유아들을 때리거나 물고, 장난감을 던지거나 부수는 등의 거친 행동을 했을 경우 영유아를 똑같이 물거나 때려 주어 그 행동을 고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아이에게 물고 때리는 것과 같은 신체적 공격성이 허용된다는 것을 가르칠 뿐입니다. 만약 영유아가 거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교사는 영유아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영유아가 그런 행동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들의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 분노조절장애 자가 테스트<sup>4)</sup>

1. 내가 한 일을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2.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망친 적이 있다.
3.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좌절감을 느낀다.
4. 성격이 급한 편이고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5. 내가 잘못해도 남 탓을 하고 화를 낸다.
6. 분노가 일어나면 주체를 할 수가 없다.
7.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도 집어던진다.
8.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다.
9. 화가 나면 거친 말을 내뱉고 폭력을 휘두른다.

#### \* 평가 기준

- 위의 9가지 항목 가운데 3가지 이상이 체크된 경우
  - 같은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문가의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지도방법

#### 공격적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지도 방법

- 가정과 연계한 일관된 훈육태도가 중요합니다.
- 안전한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주 발생하는 공격적인 상황을 관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함께 생각해봅니다.
- 폭력적인 장면의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과 연계합니다.
- 훈육을 할 때 음식을 보상, 처벌, 뇌물 또는 위협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칫 먹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상실하게 될 수 있고 식이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4) 노유진. (2015. 04. 03.). 분노조절장애 원인과 예방법은? 어릴때부터 감정 조절 필요. 키즈맘.





## 4. 강박 성향을 보이는 영유아



### 사례

만 5세 철이는 겁이 많아 낯선 곳에 가면 적응하기 어려워한다. 부모님도 철이가 낯선 곳에 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장학습이나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것을 참여시키지 않는다. 철이는 몸에 다른 것이 묻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바깥놀이를 할 때도 흙이 손에 조금이라도 묻으면 바로 털고 씻어내야 한다. 그래서 철이는 바깥놀이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옷에 먼지라도 묻으면 바로 갈아입어야 하며 음식을 먹기 전에 꼭 냄새를 맡는다. 식사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철이가 원하는 고정된 자리에 꼭 앉아야 하며, 다른 친구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화를 내며 울음을 터뜨린다. 철이가 화를 내는 일이 자주 있자 친구들도 철이와 짝이 되거나 함께 놀기를 피한다.



### 점검해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나 질서가 있고 이것이 자신의 한계나 타인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심리적 불안감이나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들이 있습니다. 강박이나 편집증과 같은 정신증은 10세 이후에 발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유아기에는 강박적 사고나 행위를 보이는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박증은 불안증과 관련이 많아서 평소에 예민한 성격이거나 불안증을 가지고 있었던 영유아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강박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자기 생긴 증상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었던 불안증상이 겹으로 드러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강박이나 불안을 보이는 영유아를 위해 부모와 기관과 연계하여 놀이치료 등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강박-편집증 자가 테스트<sup>5)</sup>

1. 작은 불편함에도 화를 낸다.





2. 편식이 심하다.
3. 물건이 항상 정해진 자리에 놓여 있어야 안심이 된다.
4. 특정 색깔이나 물건에 집착한다.
5. 혼자 놀이를 즐긴다.
6. 자주 징징거리거나 울고 떼쓴다.
7. 깊이 잠들지 못한다.
8. 소리나 맛에 민감하다.
9. 로션이나 오일 등 피부에 무언가 바르는 것을 거부한다.
10. 색연필이나 놀이감을 언제나 정해진 순서대로 정리한다.

\* 평가 기준

- 0~1개 : 지극히 정상적이다.
- 2~4개 : 예민해진 상태거나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이다.
- 5개 이상 : 강박증 증상이 의심되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



## 지도방법

영유아기 강박 증세는 ① 강박 사고를 보이는 경우, ② 강박 행동을 보이는 경우, ③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을 모두 보이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 강박적 사고를 보이는 경우

악몽을 자주 꾸거나 두려움이 많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긴장과 불안을 높이는 사고방식을 가졌으므로 따뜻한 음식이나 부드러운 담요, 안아주기와 같은 정서적 안정과 평안함을 도울 수 있는 보살핌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 강박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박적 행동을 벗어나 볼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아동은 손을 씻는 거품을 이용해 비눗방

5) 이준규. (2006. 04. 16. 경향신문). 「'살아있는 죽음' 강박증 원인과 치료」를 기초하여 재구성.





을 놀이를 하거나 비누거품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봄으로써 손을 씻는 행위에 대한 집착을 줄여갈 수 있다. 집에서 가져온 자신의 인형에 집중하는 영유아의 경우 베개 위에서 균형잡기 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형을 선생님께 맡기는 등 의식적으로 반복했던 활동에서 벗어나 보는 안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익합니다.

- 강박적 사고와 행동을 모두 보이는 경우

영유아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잘 때 자신의 인형을 모두 가져와 성벽을 쌓듯 자신의 몸을 두르게 하고 그것이 잠든 사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강력하게 믿는 경우로 전문적 치료를 통해 불안 증세를 치료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원하는 침구를 가정에서 가져오게 하고 선생님과 같은 어른의 가까운 자리에서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영유아가 강박적 사고와 행동을 모두 보이는 경우 교사는 문 제행동을 조금하게 일방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려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인형이나 담요를 고집하는 하거나 자신을 보호나 웃웃을 꼭 바지 아래에 놓아야 한다거나 어린이집이나 시장에 갈 때 가던 길로만 갈 것을 고집하는 사소한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영유아기 흔히 발생하고 많은 경우이고 특정 시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나 주변인의 정상적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강박적인 사고나 행동 또는 두 가지가 매일 반복되거나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5. 어린이집, 부모, 전문가의 협력

보육현장에서 또래와는 다른 발달적 특성을 지닌 영유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유아들은 특별한 요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치료 및 교육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장애의 특성이 발견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와 부모의 거부적 반응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유아들은 또래와는 다른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보육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래 영유아와 같은 목표나 내용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전문가의 협력으로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 1) 어린이집 내에서 협력하기

보육교사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를 대하여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 어린이집 내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유아가 발견되면 또래와 다른 특징을 객관화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원내에서 교사회의, 선배 멘토 또는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영유아의 특징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의 행동 특징을 잘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예: 일화 기록, 영유아 발달 체크리스트, 영유아 건강검진표 등)
- 교사회의, 선배 멘토 또는 원장과의 면담, 교실 개방 하기 등을 통해 도움 받기
- 원내 피드백을 교실에 적용해보고, 가정과의 연계, 전문가 연계 방법 모색 하기

### 2) 부모와 협력하기

부모와 상담을 통해 현재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를 도와야 합니다. 부모 상담을 위해서는 영유아를 관찰한 일지 또는 일화 기록, 영유아 발달 체크리스트, 영유아 건강 검진표, 장애 특징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담을 통해,

① 부모와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

- 영유아를 도울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연계하기
- 부모와 보육교사는 지속적으로 영유아 변화에 대해 관찰하고 기록하며 공유하기

② 부모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 부모가 영유아의 발달 특징에 대해 부인하고 저항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 보육교사는 시간을 갖고 영유아의 특징에 대해 계속 관찰하여 영유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객관적인 기록의 자료를 남겨두기
- 지속적인 영유아 관찰 기록으로 부모 설득하기
- 부모에게 영유아의 발달 특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하기

부모에게 영유아의 발달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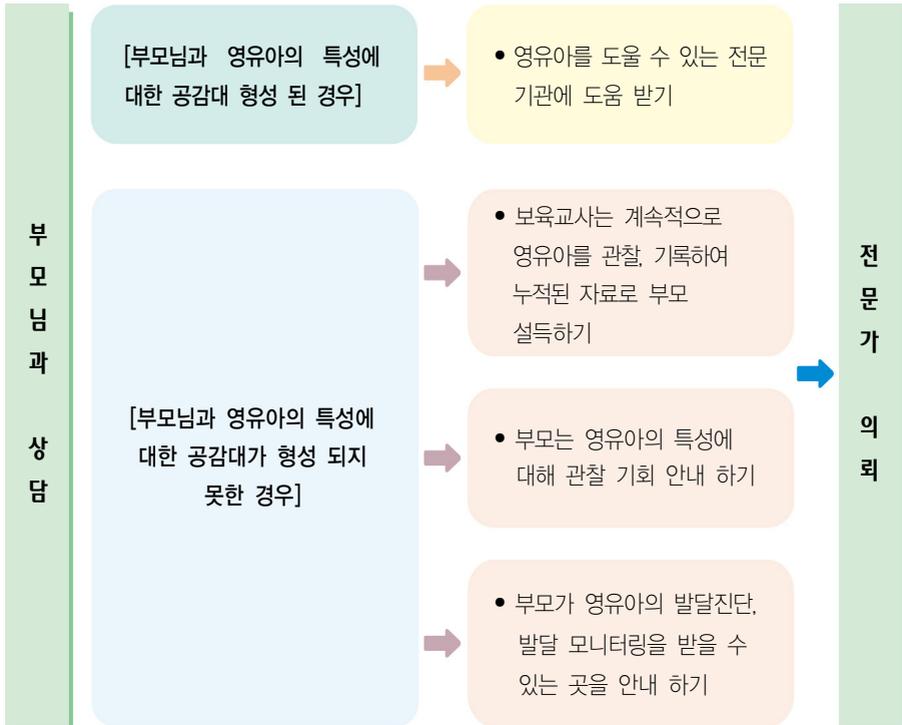
- 어린이집을 개방하여 부모가 영유아의 일상생활을 관찰할 수 있도록 기회 주기
- 부모 참관 수업 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체크리스트의 예

연령	만	세	이름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1. 영유아가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input type="checkbox"/> 2. 가만히 앉아 식사를 끝내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3. 단순한 지시도 따르기 힘들다.			
<input type="checkbox"/> 4. 다른 영유아들보다 시끄럽게 논다.			
<input type="checkbox"/> 5. 끊임없이 말하고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는다.			
<input type="checkbox"/> 6. 물건을 함께 나눠 쓰고 차례를 기다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7. 자신의 감정대로 물건을 집어던진다.			

- 부모님이 영유아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안내하기  
(예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등)





### 3) 전문가와 협력하기

부모와 보육교사가 전문가 의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 보육교사는 어떤 기관과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영유아인권 상담전문요원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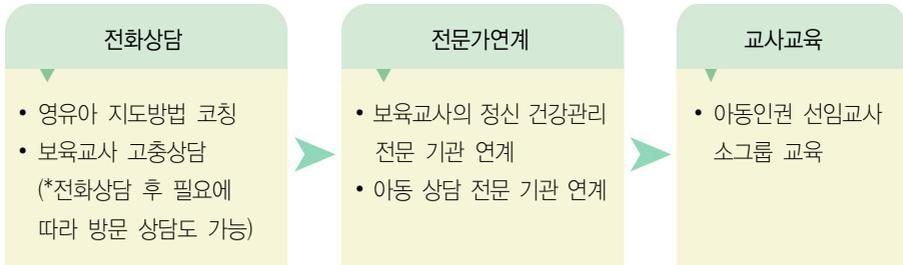
부모가 영유아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때 보육교사는 부모의 동의하에 영유아 관찰 일지 등 객관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가 진행되면 보육교사는 전문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보육 상황에서 전문가 조언을 통해 영유아 지도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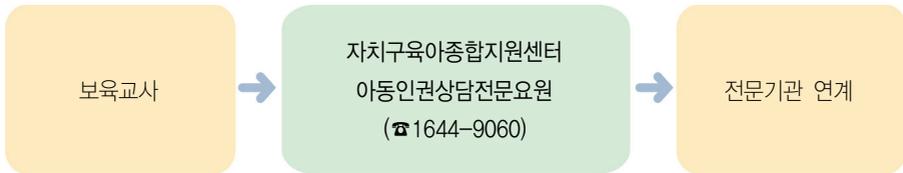


① 아동인권전문상담요원은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돕기 위해 전화상담 및 전화 상담 후 방문상담, 전문가 연계, 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인권상담전문요원을 통해 전문기관을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어떤 기관을 연계 받을 수 있을까요?

- 육아종합지원센터
  - 이용안내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
  - 서비스 내용
    -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을 통해 특수교사 현장 방문지원, 치료사 현장 방문지원, 원장 및 교사 교육 등
    - 부모교육, 가족 상담 등
    -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영유아 발달 검사
    - 아동심리상담(놀이치료, 치료놀이, 미술치료 등), 인지 치료, 언어치료 등
    - 온라인 부모 양육 상담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 이용 안내
    - 자치구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
  - 서비스 내용
    - 부모 상담 (개인상담, 가족상담)
    -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순번에 따라 대기 가능
    - 성인 심리검사는 가능하나 영유아 발달·심리검사는 서비스 불가
  - 신청 방법
    - 어린이집에서 의뢰할 경우 기관의뢰서(어린이집 양식)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출
    - 개인상담은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로 전화신청
  
- 정신건강증진센터(<http://www.g-health.kr>)
  - 이용 안내
    -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
  - 서비스 내용
    - 정서 발달에 대한 상담 가능
    - 영유아 심리검사는 유료 검사 실시  
(차상위 계층은 검사비 일부 지원도 가능)
    -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치료 필요시 전문기관으로 의뢰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의뢰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이용 방법 란에서 ‘의뢰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
    - 개인상담 의뢰 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결하여 예약 후 상담 가능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www.broso.or.kr/> ☎ 02-3433-0743)
  - 이용안내 : 사이트 이용, 전화 문의
  - 서비스 내용
    -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교육·재활지원, 가족지원, 권익옹호, 자립·주





- 거지원에 관련하여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에 대한 도움 가능
  - 전문가 상담코너를 통해 장애 아동과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분야별 전문가들이 1:1상담을 제공 (온라인 상담)
  - 유용한 사이트 코너에서는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 체크를 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이 소개
- 지역사회 복지관
    - 이용안내
      - 지역사회 복지관에 전화 예약 후 방문
      - 서비스 신청 시 대기 가능
    - 서비스 내용
      -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동상담(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치료 서비스
      - 영유아 발달 검사, 심리검사 등 전반적 발달 검사 가능
  - 아동 치료센터
    - 이용안내
      - 아동 치료센터에 관한 정보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문의
      - 상담은 전화 예약 후 상담 가능
      - 상담비는 유료
    - 서비스 내용
      - 영유아 발달, 심리상담 및 검사



**참고할 사항**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이용 안내-발달재활서비스**

- 목적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 및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서비스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① 장애 등록이 된 대상자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





### 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아동

- ②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 :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
- ③ 단,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 ① 언어·청능(聽能),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 ② 급여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급여액 및 소득 기준에 대한 문의는 복지부 콜센터 129 이용)
- 서비스 신청 방법
  - ①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② 신청서 제출 장소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③ 제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신분증, 소득증명자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 ④ 심사 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신청인에게 발급 및 발송
  - ⑤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바우처 서비스 가능
- 서비스 이용 방법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복지관과 사설 치료실 등 시·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또는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 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 선정 기준은 연령, 장애유형, 소득기준, 기타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선정 기준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이용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하시면 간단한 검사와 부모상담 및 가족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기관명	전화	주소
1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764-3524	종로구 창신길 124 동부여성문화센터 2층
2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2279-3891	중구 동호로8다길 22 중구시설관리공단 3층
3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797-9184	용산구 이태원로 274 용산여성문화원 1층
4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3395-9447	성동구 무학로6길 9
5	광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458-0622	광진구 능동로30길 23 광진구새마을회관 2층
6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957-0760	동대문구 경희대로26 생활과학대학 403호
7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435-4142	중랑구 용마산로 369
8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3290-1660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9	강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987-2567	강북구 인수봉로66길 9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 4층
10	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	995-6800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11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979-3501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94 가온빌딩 4층
12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376-3761	은평구 서오릉로 174 3층
13	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322-7595	서대문구 증가로 244 2층
14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3142-5482	마포구 신촌로26길 10 우리마포복지관
15	양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2065-3400	양천구 중앙로46길 57번 4층
16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2606-2017	강서구 강서로5길 50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4층
17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830-0450	구로구 디지털로27라길 76 4층
18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803-7747	금천구 금하로11길 40 1층
19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2678-2193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20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599-3301	동작구 동작대로29길 63-26 2층
21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	883-9383	관악구 신림로3길 35 3층
22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	576-2852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구민회관 2층
23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3412-2222	강남구 개포로 617-8
24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	443-3844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25	강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471-0812	강동구 양재대로138길 41 강동청소년회관 2층
2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318-0227	중구 소파로4길 6





## I 훈육안내서 활용안<sup>6)</sup>

본 안내서를 잘 활용함으로써 교사들은 문제행동과 훈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영유아의 바람직한 훈육을 통해 사회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안내서의 활용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들과 함께 우리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문제행동을 열거해본다.

내가 여태까지 해 왔던 훈육의 방법을 기록해 본다.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없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본다.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는지 생각해본다.

책의 내용을 숙지한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 해본다.

어떠한 방법으로 수정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료들을 모으면  
'○○어린이집의 훈육안내서'가 나올 수 있다

6) 정진화. (2015). 서울시 어린이집 훈육안내서 제작 및 발간 토론회 자료집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이해와 실천하기」를 기초하여 재구성.





## 참고문헌

- 대한소아과학회. (2012). **한국형 영유아 발달검사**. 서울: 대한소아과학회.
- 이미화 외 공저. (2013).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서울: 보건복지부.
- 임지영 외 공저. (2014). **영아발달**. 경기: 공동체.
- 정진화. (2015). **서울시 어린이집 훈육안내서 제작 및 발간 토론회 자료집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이해와 실천하기」**. 서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Lynn Clark. (1988). **SOS 부모들을 위한 지침서**(홍성운, 김유미 공역). 서울: 교육과학사.
- Russel A, Barklcy. (1997). **말 안 듣는 아이**(안동현, 김세실 공역). 부산: 하나의학사.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NY: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998). *Your Child – What every parent needs to know about child development from birth to preadolescence*. NY: Harper Collins Publishers, Inc.
- T. Stuart Watson & Frank M. Gresham. (1998). *Handbook of Child Behavior Therapy*. NY: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김충렬. (2012. 06. 15). **강박증의 감별진단과 자가진단**. 크리스찬 투데이.
- 노유진. (2015. 04. 03). **분노조절장애 원인과 예방법은? 어릴때부터 감정 조절 필요**. 키즈맘.
- 이준규. (2006. 04. 16). **‘살아있는 죽음’ 강박증 원인과 치료**. 경향신문.



## ■ 기획·총괄

조현옥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실장)  
성은희 (서울시보육담당관 과장)  
김창현 (서울시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장)  
배동원 (서울시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 주무관)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조경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선임보육전문요원)  
이한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 ■ 집필진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김수정 (총신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김정화 (강동어린이회관 관장)  
안지혜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양영아 (숙명어린이집 원장)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최상국 (서울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 감수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김낙홍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오선영 (한국인권재단 국장)

---

## [2권] 선생님-아이-엄마아빠 함께 배워요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실천하기’

발 행: 2015년 6월 발행  
발행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 화: 02-772-9814~8  
인쇄처: 디자인 나무  
ISBN 979-11-85917-04-7

---

\*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으며,  
사전 승인없이 자료집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